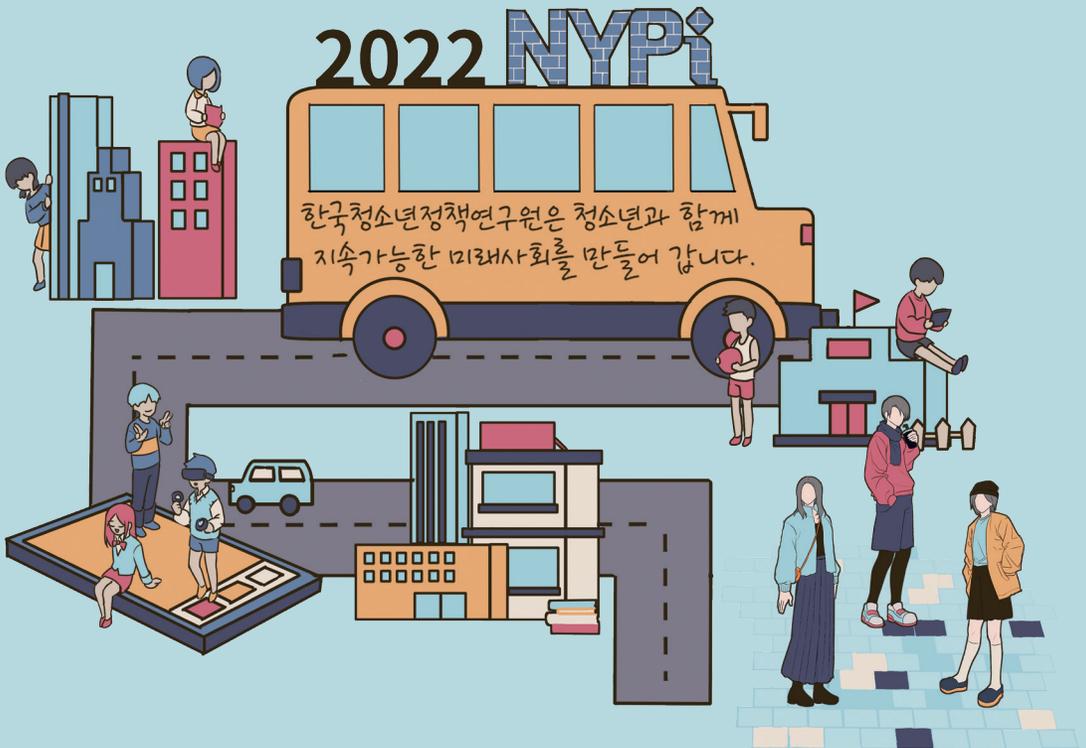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전현정 · 김나영 · 이용해



연구보고 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 탐색

저 자 전현정, 김나영, 이용해

연구진 연구책임자_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나영(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_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진병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청소년들은 가속화된 사회·환경 변화,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으로 인한 관계 맺음 기회 축소,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결손 등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등 사회·정서 역량의 경향과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더욱이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등 사회·정서 역량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 모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이에 따라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구내용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 인구구성학적(성별, 학교급별 등)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기대효과]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 및 특성 이해

(연구내용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추출 •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
[기대효과] 정서인식 역량의 세대 간 이전, 형제자매 효과 등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 확인

(연구내용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추출 및 특성 분석 •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 탐색
▼
[기대효과]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도출 /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분석 방법**

- 분석 방법을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내용	분석 방법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특성 분석 • <i>t</i>검증, <i>F</i>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 <i>F</i>검증을 통한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도출 및 특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한 영향요인 탐색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및 시사점

주요 분석 결과 / 제언 및 시사점	
주요 분석 결과	제언 및 시사점
<p>● 각 연구내용에 따라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범주화됨.</p> <p>●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결과에 근거한 제언 및 시사점을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p>	
개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배경 특성과 학교급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 •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p>[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지닌 배경 특성과 학교급 등의 종합적인 고려와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사회정서역량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심리적 요인(학업무기력, 학업열의 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 	<p>[적절한 교육적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및 평가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 학교급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차별적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의 심리·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 요구 	<p>[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 •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 확장

가정 측면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사회·정서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가정 요인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 변수들 도출
-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더 많은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 발생

[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정 문화 구축
-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족구성원 간의 물리적 교류 기회 제공
- 모든 구성원에게 상호작용 및 교감 기회 제공
- 학교급, 배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 마련

학교 측면

- 정서인식 함양에 다양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 학교에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협력적 수업활동 및 공동체적 활동 경험 등 제공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줌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 개별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 청소년 활동 참여의 접근성 증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와 제공 방식의 변화 필요
- 개별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적성 등을 파악하고 단위학교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한 학교 활동 지원체계 재구조화 필요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및 시사점]

2022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 탐색

연구보고 22-일반02-01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3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7
 -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7
 -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 7
 -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 7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영향요인 11
- 2. 사회정서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16
- 3. 청소년의 사회·정서 관련 정책 및 사례 20
 - 1) 청소년 활동 20
 - 2) 「교육회복 종합방안」 24
 - 3) 「2022 개정 교육과정」 27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33
2. 분석 변수	36
1)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36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37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41
3. 분석 방법	43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43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43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44

IV. 연구 결과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49
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49
2) 보호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51
3) 형제·자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53
4) 소결	55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관계	57
1)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도출	57
2)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61
3) 소결	68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72
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72
2)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요인 탐색	76
3) 소결	82

V. 논의

1. 결과 요약	89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89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90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92
2. 제언 및 시사점	98
1) 개인 측면	98
2) 가정 측면	103
3) 학교 측면	105
3. 결론	108
참고문헌	115
부 록	127
Abstract	135

표 목차

표 II-1. 김경희 외(2019)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 및 정의	16
표 II-2. OECD SSES의 사회정서역량 5대 영역 및 15개 하위 역량	18
표 II-3. 제4, 5,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1
표 II-4.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추진 과제 주요 내용	29
표 III-1. 연구 대상 특성	34
표 III-2.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변수	37
표 III-3. 청소년의 개인·환경 변수	38
표 III-4. 사회정서역량 측정 문항에 대한 설명	41
표 III-5.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를 위한 설명 변수	42
표 III-6.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46
표 IV-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50
표 IV-2. 보호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52
표 IV-3. 형제·자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54
표 IV-4.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중1)	57
표 IV-5.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고1)	58
표 IV-6.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 (중1)	59
표 IV-7.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 (고1)	60
표 IV-8.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중1)	62
표 IV-9.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고1)	66
표 IV-10.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중1)	73
표 IV-11.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고1)	73
표 IV-12. 잠재집단별 분류율(중1)	73
표 IV-13. 잠재집단별 분류율(고1)	73

표 IV-14. 잠재집단별 사회정서역량 평균(중1)	75
표 IV-15. 잠재집단별 사회정서역량 평균(고1)	76
표 IV-16.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의 주요 설명변수(중1)	79
표 IV-17.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의 주요 설명변수(고1)	81
표 V-1.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추진과제 주요 내용	100
표 V-2.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및 시사점	111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8
그림 Ⅱ-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23
그림 Ⅱ-2. 학습결손(심리·정서진단) 등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예시)	25
그림 Ⅱ-3. 교육회복 종합방안 중 정서·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26
그림 Ⅲ-1. KCYPS 2018 제4차년도 스페셜모듈(RMET)의 일부 문항	36
그림 Ⅳ-1.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중1)	60
그림 Ⅳ-2.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고1)	60
그림 Ⅳ-3.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특성(중1)	75
그림 Ⅳ-4.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특성(고1)	76
그림 Ⅴ-1. 연구내용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94
그림 Ⅴ-2. 개인, 가정, 학교 범주별 주요 분석 결과	97
그림 Ⅴ-3. 사회정서역량 진단 및 지원 방안	99
그림 Ⅴ-4. 심리·정서 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예시)	103
그림 Ⅴ-5. 가정 측면 시사점-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104
그림 Ⅴ-6.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youth.go.kr) 청소년활동 찾기	10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자극을 받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량의 관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미래 사회는 인지·정서·사회 등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인재를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동안 강조되었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정서적 역량을 고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수진, 김미경, 김명화, 정은주, 박종효, 2020).

특히 청소년기의 정서인식 역량은 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발달 과업이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사회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성인에 비해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인식하는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Garnefski, Legerstee, Kraaij, van den Kommer, & Teerds, 2002). 더욱이 청소년기는 정서조절 정도의 변화 폭이 크며, 다양한 사회화를 통해 정서조절 역량이 내면화되는 시기이다(임희수, 박정연, 2002).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정주, 2012; Greenberg, 2004). 즉 청소년기에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서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사고, 신체 상태에서 자신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재인용). 특히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하

1) 제1장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게 반응하는 능력이다(조한익, 이미화, 2010).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Salovey et al., 2004).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인식 역량은 청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주요한 자원이 되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역량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기의 공동체 내 상호 작용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사회성 발달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김위정, 2012; 도종수, 성준모, 2013; 설민희, 2009).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은 제한된 등교, 비대면 수업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유리, 배현순, 2020; 이근영 외, 2021), 이는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청소년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부 대책인「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사회·정서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성 결손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결여되어 있는 사회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다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중 하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생태전환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여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이처럼 아동·청소년에게 민주시민역량

과 공동체적 가치, 시민성 함양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서인식 역량이 지닌 함의는 크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아동·청소년에게 공동체 의식, 시민성, 사회화와 같은 사회·정서 인식이 주요한 요소임을 방증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정서인식 역량을 넘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사회정서역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Greenberg et al., 2003).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포함한다(김현진 외, 2020; Hughes & Terrell, 2007). 특히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포괄하여 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김경희 외, 2019; 우연경, 최정순, 김경령, 노연경, 2021). 그동안 사회 인식 속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인 '사회적 역량'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청소년의 사회성을 함양하고 시민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량과 더불어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이 그 기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즉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특히 강조되고 있는 역량인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 탐색을 넘어서 청소년의 장기적 시민성 함양 관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편 얼굴 표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성 발달로 이어진다(Griffiths & Ashwin, 2016; Masten et al., 2008).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상대방의 눈과 눈 주변의 표정만을 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역량을 높게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의 2021년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을 측정하고자 사람의 눈과 표정만을 보고 타인의 감정을 맞추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정도를 측정하였다(김유빈 외, 2018;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이에 타인의 눈과 표정만으로 타인의 감정을 맞추는 조사를 통해 측정된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면 마스크가 일상이 된 현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역량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전술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성별, 도시규모, 학교급 등의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대상인 형제자매와 보호자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와 그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과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대 간 이전효과, 형제자매 효과 등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보호자와 형제자매 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에 대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등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큰 함의를 지닌 사회정서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대한 연구내용을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잠재집단은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잠재집단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셋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은 어떠한 잠재집단 유형을 보이며, 이러한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이에 따라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 및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보호자와 형제자매에 주목하여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각 세 집단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을 추출하고 도출된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회화를 통해 정서조절 역량이 내면화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임희수, 박정연, 2002),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이라는 한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이전효과, 형제자매 효과 등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자하였다.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청소년에게 필요 불가결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사회정서역량(김현진 외, 2020)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

인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술한 연구내용과 기대 효과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성학적(성별, 학교급별 등)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기대효과]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 및 특성 이해
(연구문제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추출 •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
[기대효과] 정서인식 역량의 세대 간 이전, 형제자매 효과 등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 확인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추출 및 특성 분석 •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 탐색
▼
[기대효과]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도출 /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 마련

그림 1-1.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영향요인
- 2. 사회정서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 3. 청소년의 사회·정서 관련
정책 및 사례

1.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영향요인

아동·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는 사회불안 장애이며(Weiss & Last, 2001), 청소년기의 전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양주경(2007)은 사회불안 장애가 대인 관계 형성의 회피, 사회적 기술 발달의 저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사회불안을 보이는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 저하 등 다양한 맥락의 문제가 발생한다(Beidel & Turner, 1987).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불안 장애는 초기에 발견되어(Weiss & Last, 2001), 사회 불안에 따라 야기되는 생활 전반의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직면하며 인생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사회 불안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발달에 중요한 단계인 아동·청소년기에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 능력의 부족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를 야기하며(Garber, Zeman, & Walker, 1990), 반대로 정서를 정확히 인지할수록 사회적 불안이 감소하게 된다(Salovey & Grewal, 2005).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사회불안 및 정서적 측면의 정서 인식과 표현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사회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타인과 교류하며 소통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의 변화 폭이 크며, 다양한 사회화를 통해 정서조절 역량을 내면화하게 되는 시기이다(임희수, 박정연, 2002).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장정주, 2012; Greenberg, 2004), 나아가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때

2) 제2장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정서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사고, 신체적 상태에서 자신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Salovey et al., 2004 재인용),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 집중하여 이해하고 지각한 정서에 대해 명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Mayer, Salovey & Caruso, 2004).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경험과 정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Salovey et al., 2004), 사회적 불안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winkels & Giuliano, 1995). 이와는 반대로 임진현과 이훈진(2006)의 연구에서 따르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역량이 결여된 사람은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개인의 심리·정서에 주요한 요인임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서인식 역량이 타인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관계의 질을 개선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등의 사회관계 형성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량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정서인식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결여되어 있는 사회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다 의미 있는 지원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서인식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사회·환경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에 보편적으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회 경로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 내적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이 지닌 심리·정서적 요인들 중 자존감,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김현지, 이상수, 2018; 김택호, 김재환, 2004). 이러한 청소년의 자신감, 자기통제, 탄력성과 같은 자기존중의식은 사회 적응력을 높여줘 청소년이 속한 사회·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즉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행복감,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취평가 중심의 제도적 요인, 과도한 교육열과 학력주의, 입시 경쟁으로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을 위해 할애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은진, 양명희, 2011).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요셉과 김성천, 유서구(2011)는 청소년이 지닌 정서조절 능력이 학업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해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가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취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분, 김난옥, 2015; 서인균, 이연실, 2017). 더욱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는 학습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얻게 되는 성공경험인 학업성취감이다(김정민, 이정희, 2008;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Block, Gjerde, & Block, 1991). 따라서 학업성취감과 같은 학업 관련 변인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정서적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다. 특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원만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서 조절 역량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정서 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학습·심리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요인은 청소년의 가정과 관련 있는 변인들이다.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과 정서적 역량 함양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보호자의 양육방식 및 정서표현, 형제자매 수 등이 영향을 준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김재엽, 정윤경, 2007; 김정은, 박희연, 2011; 박영신, 김의철, 2008; 배화옥, 강지영, 2015; 임연진, 2002; 장영애, 이영자, 2009; Cummings & Davies, 1994). 구체적으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은 연구를 통해 형제자매가 없는 아동·청소년은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에 비해 TV나 컴퓨터 등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 내 상호작용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형제자매 수가 많아 보호자가 양육해야 하는 자녀수가 많아진다면 자녀 개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돌봄이 충분하지 않아 방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배화옥, 강지영, 2015).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의 시간이 많아진 최근에는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느끼게 되는 사회·정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가정 요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에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재엽, 정윤경, 2007). 아동·청소년의 정서, 사회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성 함양과 정서 문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인숙 외, 2010; 김정은, 박희연, 2011; 임연진, 2002; 장영애, 이영자, 2009; Cummings & Davies, 1994).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정서를 발달시킨다(Cummings & Davies, 1994). 특히 긍정적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며(김인숙 외, 2010),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유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임연진, 2002). 김정은과 박희연(2011)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 행동이 덜 발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영애와 이영자(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을 제공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감정을 정리하여 표현하게 되며, 이는 결국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사회관계 형성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과 사회·정서 발달에 지속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과 정서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와 청소년 정서와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부모와의 관계 변인들을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정서 자극과 표현을 반복하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며 점차 사회 경험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대표적인 청소년의 사회관계 경로는 학교이다. 청소년기의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무르며 또래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과 교감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중요한 애착의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이미숙, 민하영, 2013). 또한 김소영과 그의 연구진(2018)은 청소년이 스스로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정서역량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왕따,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 행동들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Greenberg et al., 2003), 이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회관계를 확장해나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서인식 역량이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청소년들의 사회·정서 정도를 파악하고 정서인식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청소년의 갈등해결과 타인이해능력, 자기표현 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특히 한상철과 그의 연구진(2014)은 청소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등의 자기존중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사회관계 경로인 학교에서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과 정서적 역량 함양에 가정에서의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인숙 외, 2010; 장영애, 이영자, 2009; Cummings & Davies, 1994). 즉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정서인식 역량 함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역량 수준과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대 간 이전효과, 형제자매 효과 등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보호자와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에 대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등의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정서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skills)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김현진 외, 2020; Hughes & Terrell, 2007),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Merrell & Gueldner, 2010).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희 외, 2019; 우연경 외 2021). 구체적으로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타인과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으로 관계성과 협업의 특성을 지닌다. 관계성은 다양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역량을 하위 역량으로 구분되며, 협업은 배려와 협업 기술, 갈등대처 기술을 하위 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다(김경희 외, 2019). 이와 함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역량은 정서관리와 정서이해 및 공감으로 특성이 구분된다. 이때 정서관리는 정서조절, 회복탄력성을 하위 역량으로 포함하며 정서이해 및 공감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공감 역량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한다(김경희 외, 2019).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과 하위 역량, 각 하위 역량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II-1>과 같다.

이때 정서인식 역량은 정서적 역량의 정서이해·공감 특성의 하위 역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정서인식 역량은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식, 주의집중 등의 일련의 과정이자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et al., 2004). 이처럼 정서인식 역량은 정서적 역량의 하위 역량으로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촉진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II-1. 김경희 외(2019)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 및 정의

영역	특성	하위 역량	정의
사회적 역량	관계성	다양성	가치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자신의 의견 이외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의사소통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목적을 인식하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
		대인관계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 혹은 촉진하기 위한 인지적·정의적 절차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영역	특성	하위 역량	정의
협업	협업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전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려보려는 태도와 행위
		협업 기술	사회 구성원이 서로 돕고 지원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과 행동경향성
		갈등대처 기술	타인과의 의견 혹은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절차적 지식과 경험
정서적 역량	정서관리	정서조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완하며 긍정정서로 전환하는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 전략
		회복탄력성	환경적 제약이나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자기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이전의 통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능력
	정서이해·공감	정서인식	자신의 신체 상태 혹은 정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인지, 주의집중, 이해와 명명 등을 포함하는 과정
		정서표현	자신의 정서를 외적행동으로 표출하는 정서적 반응
		공감	타인의 마음 상태를 표상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

* 출처: 김경희 외(2019). 서울교육중단연구 2020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의 p.30, pp.33-34 표를 재구성

이처럼 사회정서역량은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닌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하위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서역량을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의 종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사회 인식 속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및 시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다면적 의미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인지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이 그 기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사회정서역량의 정서적 역량의 하위 역량인 정서인식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OECD는 2011년 ‘교육과 사회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이하 ESP)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래핵심역량에 주목하였으며, 2017년 사회정서역량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정서역량에 관한 연구(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이하 SSSES)를 추진해오고 있다(김미숙, 이쌍철, 이호준, 김정아, 황지원, 2019; 김현진 외,

2020). OECD는 사회정서역량을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8). OECD SSES에서 제시한 사회정서역량은 ‘개방성(open-minded)’, ‘과제수행(task performance)’,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타인과의 관계(engaging with others)’, ‘협력(collaboration)’의 5대 영역과 15개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5; 김현진 외, 2020: 41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개방성 영역은 호기심, 관용, 창의성 역량으로 구분되며 과제수행 영역은 끈기, 자기통제, 책임감 역량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서조절 영역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통제, 낙관주의 역량,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사회성, 자기주장, 활기 역량, 협력 영역은 협동, 신뢰, 공감 역량으로 구분된다(김현진 외, 2020: 41에서 재인용). 다음 <표 II-2>는 OECD SSES의 사회정서역량 5대 영역 및 15개 하위 역량과 그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표 II-2. OECD SSES의 사회정서역량 5대 영역 및 15개 하위 역량

SSES 5대 영역	SSES 15개 하위 역량	정의
개방성 (open-mindedness)	호기심(curiosity)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욕구
	관용(tolerance)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용
	창의성(creativity)	타인과 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 도출
과제수행 (task performance)	끈기(persistence)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 노력과 끈기
	자기통제(self-control)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
	책임감(responsibility)	약속한 일이나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정서조절 (emotional regulation)	스트레스 관리 (stress resistance)	스트레스 관리 및 편안한 마음 상태 유지
	정서통제 (emotional control)	부정적 정서의 통제 및 긍정적 정서 유지
	낙관주의(optimism)	삶을 즐기는 태도 및 긍정적 결과 기대
타인과의 관계 (engaging with others)	사회성(sociability)	긍정적인 친구 관계 유지 및 새로운 관계
	자기주장(assertiveness)	리더로서의 선호 및 타인 설득 역량
	활기(energy)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

SSES 5대 영역	SSES 15개 하위 역량	정의
협력 (collaboration)	협동(cooperation)	타인을 도와주고 존중하는 경향
	신뢰(trust)	타인 혹은 타인의 도움이나 정직에 대한 신뢰
	공감(empathy)	타인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

* 출처: 김현진 외(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의 p.52 표를 재구성

앞서 살펴본 김경희 외(2019)에서는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구분지어 정의하고 있으나, OECD SSES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개방성, 과제수행, 정서조절, 타인과의 관계, 협력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개념과 구성요소를 매칭 하여 비교할 수는 없지만 김경희 외(2019)에서는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각각의 구성 방향과 틀을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 SSES에서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SSES는 사회정서역량을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능력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량 등을 포함하며,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인지적 영역의 다양한 역량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SSES의 협력 영역의 하위 역량들은 김경희 외(2019)의 사회적 역량의 협업과 정서적 역량의 정서이해·공감의 하위역량들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다. 이 중 협력 영역의 공감 역량은 타인의 정서와 욕구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김미숙 외, 2019), 본 연구에서 주되게 살펴보고자 하는 정서인식 역량과 그 구성 개념이 유사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정서역량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OECD SSES의 사회정서역량의 개념을 준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SES의 5대 영역을 기본 틀로 하여 사회정서역량을 구성하였으며 각 5대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역량 중 일부 요인을 지표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서인식 역량의 구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협력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청소년의 사회·정서 관련 정책 및 사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사회·정서적 역량을 고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김수진, 김미경, 김명화, 정은주, 박종효, 2020).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서인식 역량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느끼며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et al.,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서인식 역량은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역량으로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인지적 역량을 의미한다(하형석 외, 2021).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성 결손 등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김유리, 배현순, 2020; 이근영 외, 2021) 정서인식 역량이 지닌 함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정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 환경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 관련 정책들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어떠한 기저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청소년 활동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사회 문제에 노출될 높은 가능성을 지닌 시기이며, 사회화를 통해 정서조절 역량이 내면화되는 시기이다(임희수, 박정연, 2002).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경로의 상호작용 과정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시기의 '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 정책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확대,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왔다³⁾. 나아가 제5차 청소년정책

3)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0)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기본계획에서는 5대 정책과제 영역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함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을 포함하여 청소년 참여 및 활동을 강조하였고 청소년의 역량 증진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청소년 활동을 위한 인프라 및 범주를 확대하려 노력하였다⁴⁾.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이보다 더 나아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과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하여 4대 정책목표, 12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즉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된 기본계획 방향으로 설정되었다⁵⁾. 이러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정책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확충, 활동 지원체계 구축, 인프라 및 활동 범위 확대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제4, 5,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구분	비전	주요 분야(목표)	중점과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확대 •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유익한 환경 조성 • 청소년 사회적 사회문화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단체·전문 인력의 역량 제고 •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범부처 총괄조정기능 강화

4)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0)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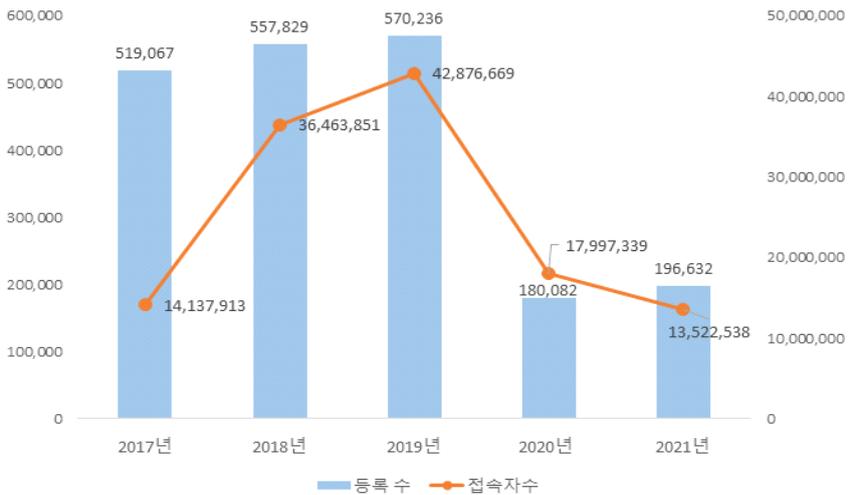
5)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0)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구분	비전	주요 분야(목표)	중점과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출처: 제4, 5,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0)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youth.go.kr)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청소년 프로그램 등록 실적과 홈페이지 접속사 수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프로그램 등록 수와 접속자 수는 2020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대외적 활동 감소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 수의 감소 등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의 급격한 사회 결손을 경험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록 프로그램 운영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http://www.mogef.go.kr/mp/pod/mp_pod_s001.do?mid=plc502)에서 2022.8.15. 인출

* 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록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활동의 방식도 점차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화의 결손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확산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회복 종합방안」⁶⁾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 및 대응상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교육결손 문제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기본계획은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에 대해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게 종합 진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Ⅰ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유아·직업계고 및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Ⅱ 맞춤형 지원', 과대·과밀학습 해소,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 등 'Ⅲ 교육여건 개선'을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안내자료, 2022.03.). 이 중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관련 깊은 'Ⅰ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악화, 사회성 저하 등의 사회 결손 최소화를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코로나 확산 3년 전(2017-2019년)과 3년 후(2020-2022년 1분기)를 비교하면 청소년 대상 정신 상담 건수가 1.4배 증가하였으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06), 2020년 국가교육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5.7%와 교사 87.6%가 학생의 사회성 결손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7.29.). 즉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 교류와 소통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우관계 형성 등의 사회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별 청소년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맞춤형 종합 회복 지원을 종합적이고 적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사회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① 학습결손(심리·정서진단) 등 종합 진단을 통해 결손 영역을 파악하고 난 후 ② 학습결손 회복 지원, ③ 몸과 마음 회복 지원 등 청소년 수준 및 희망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학습결손(심리·정서진단) 등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예시는 다음 [그림 II-2]와 같다.

6) 교육부 보도자료(2021.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

종합 진단	결손 영역	맞춤 지원	
학습 진단	학습	학습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튜터링 학습컨설팅
		기초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심리 정서 진단	심리 정서 사회성	심리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상담·교육-Wee센터-외부기관 연계 상담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 서비스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체험활동
건강 진단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건강 UP+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신체건강 교육자료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재인용

* 주: 「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2021.7.29.)의 p.5 그림을 재구성

그림 II-2. 학습결손(심리·정서진단) 등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예시)

이 중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심리 및 정서진단이 선행된다.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및 단위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심리·정서와 사회성 등을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사회성 영역의 결손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심리·정서 진단은 교사 관찰 및 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이후 전문 진단 도구(PHQ-9)를 개발하여 적용된다. 또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정서발달, 신체 건강 등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생애 누적 결손 조사 및 지속적 맞춤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단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게 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심리·정서 진단을 통한 결과는 개별 청소년 맞춤형으로 다양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및 활용된다.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심리·정서 등을 지원하고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한 지원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집단 상담, 상호 이해 교육 등이 학교 및 학급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2021년 개발 및 보급되

고 2022년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연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 맞춤형의 치료 및 종합 상담을 위해 위(Wee)센터와 외부상담기관의 상담과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한편 학생 간, 학생-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율 동아리 활동, 포레 멘토링 등 포레 활동을 위한 소모임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교외 현장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타 부처와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체험학습을 지원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의 악화, 사회성 저하 등의 사회 결손 등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정서 및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대응 방안의 마련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의 장기적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 기반과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2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몸과 마음의 결손을 회복합니다.

확대

👤 학생 맞춤형 종합적 상담·치료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맞춤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 제공

👥 사회성 프로그램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으로 사회성 회복

확대

🏃 신체건강 예방교육

신체활동 확대 운영, 바른자세 및 식습관 개선 예방 교육 등으로
건강 및 체력회복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 주: 교육회복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중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결손 회복 지원 내용 일부 발췌

그림 11-3. 교육회복 종합방안 중 정서·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3) 「2022 개정 교육과정」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내 관계 맺음과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인재의 핵심 역량이며 현대사회에서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 덕목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강선보 외, 2008). 특히 미래 사회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0.10.).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측면에서 인성교육 강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미래사회의 인성교육이 더 강조될 것이라는 응답이 89.14%로 나타나 사회 전반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20.10.).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7472호). 더욱이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이며 덕목은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로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며 정서인식 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역량과 관련된다. 즉 인성교육 정책은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과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유의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정 국가기본계획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2020년 인성교육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교육부, 2016.1.19.; 2020.1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타인·공동체·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0.10.). 더욱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 2020.10.). 즉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등의 가정 기능 회복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인성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지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중 하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생태전환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하여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 중 청소년의 사회·정서와 관련 깊은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환경 변화 대응 지원이라는 네 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개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재인용).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은 네 가지의 세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방향 제시’와 ‘㉡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의 추진 내용들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2021.11.24.).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방향 제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과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교육적 인간상 설정 시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배려, 소통, 협력, 공감 등의 ‘포용성과 시민성’이다. 더욱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인 핵심역량을 체계화하면서 기존의 6개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11.24.).

다음으로 ‘㉡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에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 가치, 태도와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 반영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소양 등의 기본 역량과 자질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상호 연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교육부, 2021.11.24.). 이를 위해 모든

교과의 내용기준을 개발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에 내포된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되도록 하였으며, 비교과 활동 연계를 통한 참여·체험 활동의 강화와 다양한 지역 연계 참여 학습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요 추진 과제로 담고 있다(교육부, 2021.11.24.).

표 II-4.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추진과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방향 제시	
□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으로 개선	[‘인간상’ 설정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도성(주체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 창의와 혁신(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 포용성과 시민성(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핵심역량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6개 역량 • (현행) 의사소통 => (개선안) 협력적 소통 [교육목표-인간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육 목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안)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생태전환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인간상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 수정
□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개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를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지향 [민주시민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수정·보완

구분	주요 내용
□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반영(안)	<p>[교과교육 연계-내용기준 개발 및 교과 교육과정 재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기준 마련) 생태 감수성, 민주시민성 등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구체화하고 핵심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반영 • (교과 재구조화) 공동체 소양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 내용 재구조화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p>[비교과 활동 연계-참여·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활동 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삶과 연계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참여와 실천에 기반을 둔 학생 자치활동 강화 • 지역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습 형태 지원

* 출처: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pp.12-16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 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제 중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인성교육 정책과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와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게 인성, 공동체 소양, 시민성 함양, 사회화와 같은 사회정서 인식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주요한 자원이 되며, 청소년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역량은 자명하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로 공동체 의식, 소통, 협력, 공감, 배려 등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성교육 정책과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의 국가적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방증한다.

다만 앞서 인성교육 정책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가정이 지닌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정책 주체의 적극적 연계 및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와 교육청, 학교 등과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주체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 제3장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 2. 분석 변수
-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과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2018의 제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1년 실시된 KCYPS 2018 제4차년도 자료는 2018년 기준 초4, 중1 코호트 원패널이 각각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 조사된 자료이다. 초4 코호트는 1차 조사 때 2,607명에서 4차 조사 2,275명으로 표본 유지율이 87.3%였으며, 중1 코호트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2,590명에서 제4차 조사 시 2,265명으로 87.5%의 표본 유지율을 보여주었다⁸⁾. 특히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는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로 아동·청소년의 주요 사회성 관련 역량인 정서인식 역량을 측정하는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조사를 실시하였다(하형석 외, 2021).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KCYPS 2018 제4차년도 자료의 초4, 중1코호트 원패널(중1, 고1)⁹⁾과 보호자, 형제자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KCYPS 2018 4차년도(2021년) 조사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 2,275명, 보호자 2,270명, 형제자매 945명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2,265명, 보호자 2,264명, 형제자매 848명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의 전반적인 구성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KCYPS 2018 4차년도(2021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III-1〉 참조).

7) 제3장은 전현정 부연구위원,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8) NYPI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 KCYPS 2018 제1~4차 조사 코드북에서 2022.07.15. 인출.

9) 이하 '중학교 1학년'은 초4코호트 원패널 자료이며 '고등학교 1학년'은 중1코호트 원패널 자료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 1,145명(50.3%), 여자 청소년 1,130명(49.7%)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대도시 학교를 재학 중인 청소년이 977명(43.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자가 응답한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구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보통인 사례 수가 1,690명으로 전체 사례 수 중 74.4%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의 구성 형태는 양부모 가정이 1,928명(84.9%)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이 1,217명(53.7%), 여자 청소년이 1,048명(46.3%)으로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속해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1,002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구 구성 형태도 중학교 1학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보통'이라 응답한 사례 수가 1,711명(75.6%)로 가장 많았고, 양부모 가정의 가구 구성 형태를 갖는 경우가 전체 사례 수 2,264명 중 1,854명(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성별, 도시 규모, 가정의 경제수준, 가구 구성 형태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연구 대상 특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과 구성 형태를 지닌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 및 영향요인을 탐색한다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를 위한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YPS 2018 4차년도(2021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인식 함양에 청소년의 개인·환경 요인이 갖는 영향력 등의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III-1. 연구 대상 특성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성별	남자	1,145(50.3)	1,217(53.7)
	여자	1,130(49.7)	1,048(46.3)
도시 규모	대도시	977(43.0)	1,002(44.5)
	중소도시	926(40.7)	901(40.0)
	읍면지역	370(16.3)	351(15.6)

	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하(하+최하)	321(14.1)	325(14.4)
	보통	1,690(74.4)	1711(75.6)
	상(상+최상)	259(11.4)	228(10.1)
가구 구성 형태	부모+자녀	1,928(84.9)	1,854(81.9)
	한 부모+자녀	137(6.0)	187(8.3)
	(한)조부모+자녀	13(0.6)	14(0.6)
	(한)조부모+부모+자녀	139(6.1)	160(7.1)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48(2.1)	45(2.0)
	기타 ¹⁾	5(0.2)	4(0.2)

* 주: 1) 가구 구성 형태의 기타: 친인척+자녀, 형제+자녀 등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와 함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각 연구 내용에 따른 최종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전반적인 정서인식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분석의 최종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 2,275명, 보호자 2,270명, 형제자매 945명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2,265명, 보호자 2,264명, 형제자매 848명이다. 다만 일부 분석 변수에 따른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정서인식 역량의 세대 간 이전, 형제자매 효과 등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 및 차이 분석은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중 정서인식 역량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뒤 세 집단을 매칭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중학교 1학년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865명,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76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에는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지표 변수에 결측치를 가진 사례를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청소년 2,607명 중 총 2,275명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2,590명 중 2,26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변수

1)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을 분석하고자 KCYPS 2018 제4차년도(2021년) 스페셜 모듈로 조사된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RMET는 사람의 눈과 표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맞추는 조사지로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김유빈 외, 2018; 하형석 외, 2021).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상대방의 눈을 보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를 선택하게 되고 이때 더 많이 맞출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의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유빈 외, 2018; 하형석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의 총 28개의 RMET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환산한 정서인식 역량 점수 값(0~28)을 정서인식 역량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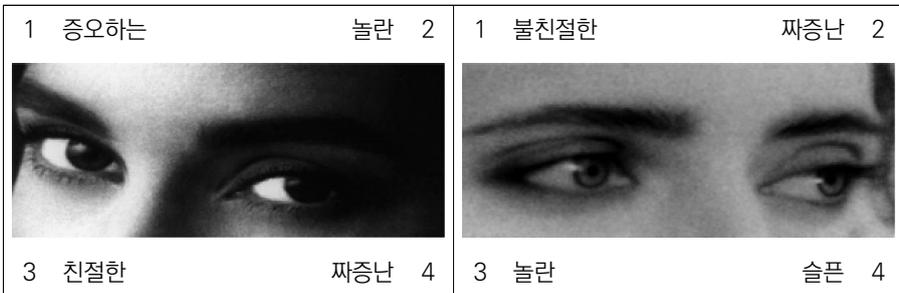


그림 III-1. KCYPS 2018 제4차년도 스페셜모듈(RMET)의 일부 문항

전반적인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다양한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인구구성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도시규모, 형제자매 수,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가구 구성 형태 변수이다.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을 위해 활용한 구체적인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변수

변수	값
성별	1 = 남자 2 = 여자
도시규모	1 = 대도시 2 = 중소도시 3 = 읍면지역
형제자매 수	1 = 1명 2 = 2명 3 = 3명 4 = 4명 이상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1 = 하 2 = 보통 3 = 상
가구 구성 형태	1 = 부모 + 자녀 2 = 한 부모 + 자녀 3 = (한)조부모 + 자녀 4 = (한)조부모 + 부모 + 자녀 5 = (한)조부모 + 한 부모 + 자녀

* 주: 성별, 도시규모, 형제자매 수 변수는 청소년(원패널) 응답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가구 구성 형태는 보호자 응답값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사회 환경 속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 정도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Bowlby, 1988), 궁극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와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사회성이 바람직하게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Furman & Buhrmester, 1985).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인지 및 비인지적 성취와의 밀접한 관계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함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오희정, 김갑성, 2018; Bandura, 1989; Ryan & Deci, 2000). 특히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통제와 같은 비인지적 요소는 청소년의 정서 인식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m, Wang & Cassidy,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을 도출한 뒤 잠재집단에 대한 다양한 개인·환경 요인 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된 실증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환경 요인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오희정, 김갑성, 2018; Bowlby, 1988; Ryan & Deci, 2000; Shim et al., 2013). 분석에 활용한 청소년의 개인·환경 변수는 크게 개인, 가정, 학교 요인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의 경험, 학습 심리적 요인 등의 변수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 영역에는 행복감, 창의적 성격,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협동심과 같은 긍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변수와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변수, 그리고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심리적 요인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정 영역에는 사회적 관계 변수로 부모 혹은 가족과의 소통 및 관계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및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 관계 변수,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학교 영역에는 학교에서의 경험인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학습 심리적 요인 변수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수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청소년의 개인·환경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청소년의 개인·환경 변수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Cronbach's α)	
영역	세부영역			중1	고1
개인	심리·정서적 특성	행복감	- '전반적으로 나는...'의 행복감 관련 문항 - 4점 척도(1: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4: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	-
		창의성	- 창의적 특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 창의적 성향 문항(18개), 비창의적 성향 문항(12개) 총 30개 문항의 '선택' 여부에 따라 '창의적 성격 점수' 산출(-12~18 사이의 값)	-	-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Cronbach's α)	
영역	세부영역			중1	고1
		삶의 만족도	-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22	.811
		자아존중감 ¹⁾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10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27	.813
		협동심	- 집단축진 문항(6개), 팔로워십 문항(3개), 갈등문제해결 문항(5개) 총 14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934	.926
		주의집중	-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등 부정적 주의집중과 관련된 7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49	.840
		공격성	-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 공격성과 관련된 6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48	.846
		신체증상	- '머리가 자주 아프다' 등 부정적 신체증상과 관련된 8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69	.859
		사회적 위축	-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87	.883
학습·심리적 요인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²⁾	-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 5점 척도(1: 매우 못함~5: 매우 잘함)	-	-	
	학업성취 만족도 ²⁾	- 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 -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한다)	-	-	
	학업무기력	- 통제신념 결여 문항(4개), 학습동기 결여 문항(4개), 긍정정서 결여 문항(4개), 능동수행 결여 문항(4개), 총 16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915	.913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신뢰도 (Cronbach's α)	
영역	세부영역			중1	고1
가정	사회적 관계	부모님과 대화시간	- 생활시간(하루일과) 중 부모님과 의 대화시간(주말 기준) - 7점 척도(1: 전혀 안 함~7: 4시간 이상)	-	-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 평일 혹은 주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시/분) - 시간 + (분/60)으로 시간 변수로 변환	-	-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	-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별 빈도 문항으로 가족과의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사용 빈도에 대한 2개 문항 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 자주 사용한다)	.725	.744
		부모관계	- 가정의 양육태도에 대한 따스함 문항(4개), 자율성 지지 문항(4개), 총 8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916	.915
학교	학교에서의 경험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 방송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교내 공식 동아리 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지원하는 교외 공식 동아리 의 연간 참여 횟수 변수 - 4점 척도(1: 없다~4: 5회 이상)	-	-
	학습·심리적 요인	학교생활 만족도 ²⁾	-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 수준 -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한다)	-	-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	-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등 긍정적 친구관계 8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68	.863
		교사관계	- 접근가능성 문항(3개), 민감성 문항(4개), 신뢰성 문항(4개), 수용성 문항(3개), 총 14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906	.908

* 주: 1) 자아존중감의 일부 부정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
2) 변수의 '잘 모르겠음' 응답은 결측 처리하여 분석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우선,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SSES의 사회정서역량의 15개의 하위 요소 중에서 각 영역별로 대표적인 하위 요소를 하나씩 선정하여 사회정서역량 잠재프로파일의 지표변수(indicator variables)로 활용하였다. 우선, 개방성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KCYPS 2018의 '창의성 특성 척도(CPS)'를 활용하였으며, 과제수행 영역은 '끈기'를, 정서조절 영역은 '낙관주의(삶의 만족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사회적 위축 관련 변수를 역코딩하여 '사회성' 개념의 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협력 영역은 '정서인식 역량(RMET)'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지표 변수 간 척도가 상이함에 따라 각 변수를 표준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 변수의 경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사회정서역량 측정 문항에 대한 설명

영역 ¹⁾	변수 ²⁾	변수 설명	신뢰도 (Cronbach's α)	
			중1	고1
개방성 (open-minded)	창의성	- 창의적 특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 - 창의적 성향 문항(18개), 비창의적 성향 문항(12개) 총 30개 문항의 '선택' 여부에 따라 '창의적 성격 점수' 산출(-12~18 사이의 값)	-	-
과제수행 (task performance)	끈기	-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 끈기와 관련된 8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610	.607
정서조절 (emotional regulation)	낙관주의	-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등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5개 문항의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22	.811

영역 ¹⁾	변수 ²⁾	변수 설명	신뢰도 (Cronbach's α)	
			중1	고1
타인과의 관계 (engaging with others)	사회성	-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5개 문항을 역코딩한 평균값 -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887	.883
협력 (collaboration)	정서인식 역량- (RMET)	- 사람의 눈과 표정 그림을 보고 그 감정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28개의 RMET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정서인식 역량 점수로 환산한 값(0~28 사이의 값)	-	-

* 주: 1) OECD SSES(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사회정서역량 5대 영역
2) OECD SSES 사회정서역량 영역별 KCYPS 2018 분석 활용 변수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청소년 및 보호자의 총 279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를 위한 설명 변수

영역 (문항 수)	구분 (문항 수)	설명 변수 (문항 수)
개인 (208)	배경 및 생활환경 (57)	성별(1), 수면의 질(2), 여가시간(12), 운동시간(1), 스마트폰 사용 여부 및 목적별 사용 빈도(14), 스마트폰 의존도(15), 활동별 연간 참여횟수(11),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1)
	신체 및 심리적 특성 (60)	신체증상(8), 건강상태(1), 주의집중(7), 공격성(6), 행복감(4), 우울(10), 자아존중감(10), 협동심(14)
	학습 관련 요인 (43)	학업성취(2), 학업열의(16), 학업 무기력(16), 학습시간(8), 사교육 여부(1)
	진로 (18)	진로적응력(13), 진로관련 대화빈도(4), 장래 직업 결정여부(1)
	비행 (30)	현실비행 경험 유무 및 빈도(15),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 및 빈도(15)

영역 (문항 수)	구분 (문항 수)	설명 변수 (문항 수)
가정 (39)	기본 배경 (6)	부모 최종학력(2), 월평균 가구소득(1),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1), 부모 주간 노동시간(2)
	부모-자녀 관계 (28)	따스함(4), 거부(4), 자율성지지(4), 강요(4), 구조제공(4), 비일관성(4),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2), 부모와의 대화시간(2)
	부모의 교육계획 및 학교만족도 (5)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3), 자녀의 장래희망 교육수준(1), 자녀의 학업성취 정도(1)
학교 (32)	학교 특성 (3)	도시규모(1), 일주일 평균 수업 일수(2)
	학교생활 (29)	친구관계(13), 교사관계(14), 학교생활만족도(2)

3. 분석 방법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전반적인 정서인식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성별, 도시규모 등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자료를 매칭하여 하나의 분석 자료로 구성한 뒤 t 검증과 F 검증을 활용하여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더욱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인구구성학적 배경 변수들에 대한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가 지니고 있는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청소년 사회성의 바람직

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Furman & Buhrmester, 1985).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유대감 및 정서적 교류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정서인식 역량 함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세대 간 이전효과, 형제자매 효과 등 복합적이고 다면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라 잠재 유형을 구분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자료를 매칭 하여 하나의 분석 자료로 구성한 뒤,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른 잠재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변수 중심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과는 다르게 개인이나 대상의 특성에 주목하는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oriented approach)으로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의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분석 기법이다(Bergman, Magnusson, & El Khouri, 2003).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이질적인 잠재 하위 집단을 도출함으로써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 잠재집단에 따라 결과변수를 비교하고 잠재집단 간 분류를 위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김나영, 손윤희,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역량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집단 간 존재하는 구체적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의 개인·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질적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개인·환경 요인을 도출하였다.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람 중심 접근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

요소인 개방성, 과제수행, 정서조절, 타인과의 관계, 협력 영역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잠재집단 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정보지수로서 AIC, BIC, SA-BIC,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LMR과 조정된 LMR 검증과 같은 모형적합도와 분류 비율,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도출된 잠재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맥락요인을 탐색하고자 머신러닝 기법의 일종인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였다(Breiman, 2001). 랜덤포레스트 기법은 관심 대상의 집단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으로 각 노드에서 변수를 임의로 선택하고, 무작위로 자료를 복원추출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 배깅(bagging) 등 다른 모형에 비하여 높은 안정성과 예측력을 지닌다. 또한, 자료의 원 문항을 그대로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교육맥락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분석 기법이다(김나영, 손은희, 2022; 박소영, 정혜원, 2021; 유진은, 2015; Breiman, 2001).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279개의 설명 변수 중 결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속변수의 결측치는 중앙값(median)으로, 명목변수의 결측치는 최빈치(mode)로 대체하였다(Breiman, 2003).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각각 훈련자료 70%, 시험자료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총 50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였으며, 개별 의사결정 나무의 각 노드에서 사용한 변수의 최적 개수는 $16(= \sqrt{279})$ 로 설정하였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한 결과, 중1과 고1 청소년 모형에서 다중분류의 정확도(accuracy)는 각각 75.0%와 75.4%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를 도출하고자 예측의 정확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중요도 지수¹¹⁾에 근거하여 상위 10% 정도(30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 의존성 도표를 통해 선정된 주요 변수의 수준에 따른 각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Mplus 8.6 프로그램과 Python 프로그램(ver. 3.7.6)의 Scikit-learn 패키지

10) 일반적으로 분류 정확도(accuracy)는 75%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Edla, Mangalorekar, Dhavalikar, & Dodia, 2018; Lebourgeois et al., 2017).

11) 지니불순도(Gini impurity)를 기준으로 불순도 감소분의 평균(Mean Decrease Impurity)을 산출하여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함.

(ver0.22.1)를 활용하였다.

상술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연구내용	분석 방법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특성 분석 • <i>t</i>검증, <i>F</i>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 <i>F</i>검증을 통한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도출 및 특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집단 도출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PA) •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한 영향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 요인 탐색 	

○ ————— 제4장 연구 결과

-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관계
-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 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형제·자매수와 가구 구성형태에 따라서도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형제·자매 수가 2명이고 ‘(한)조부모 + 자녀’의 가구 구성 형태를 갖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청소년보다 정서인식 역량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규모와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통이나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는 사회적 위축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인식하려는 노력 정도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단편적인 기술적 분석 결과로 다른 요인들이 유의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 청소년 결과와 유사하게 성별, 형제·자매 수,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12) 제4장의 1절은 이용해 전문연구원과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2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3절은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형제·자매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와 '(한)조부모 + 한 부모 + 자녀'의 가구 구성에서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형제·자매수와 가구 구성형태와 같은 가정 관련 요인들은 가정에서의 교감 및 정서적 교류 등의 상호작용 경험의 정도를 단편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청소년의 배경 특성이다. 즉 가정에서 정서적 교감 및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과 수를 통해 그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모두 형제·자매수와 가구 구성형태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형제·자매 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 및 심리·정서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박영신, 김의철, 2008; 배화옥, 강지영, 2015), 이는 다른 심리적 요소 혹은 사회·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출된 결과라 추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거주하는 도시 규모,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분석 결과와 상이하게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고등학교 진학 후의 학교급 변화와 함께 심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과 유사하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성별	남자	1,145	15.38	-1.372	1,217	15.19	-0.484
	여자	1,130	15.69		1,048	15.31	
도시 규모	대도시	977	15.80	4.505* 대도시 > 읍면지역	1,002	14.82	4.671** 읍면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926	15.55		901	15.44	
	읍면지역	370	14.78		351	15.85	

	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형제 자매수 (본인 포함)	1명	349	15.47	0.052	317	15.01	0.228
	2명	1,371	15.56		1,383	15.28	
	3명	482	15.55		490	15.26	
	4명 이상	73	15.34		75	15.52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하	321	16.70	8.565*** 하 > 보통, 하 > 상	325	16.41	8.594*** 하 > 보통
	보통	1,690	15.31		1,711	14.96	
	상	259	15.52		228	15.68	
가구구성 형태	부모 모두 + 자녀	1,928	15.60	1.107	1,854	15.28	0.514
	한 부모 + 자녀	137	15.33		187	15.24	
	(한)조부모 + 자녀	13	16.69		14	13.07	
	(한)조부모 + 부모 모두 + 자녀	139	14.67		160	15.05	
	(한)조부모 + 한 부모 + 자녀	48	15.50		45	15.36	

* p<.05, ** p<.01, *** p<.001

* 주: 1) 도시 규모 항목은 청소년(원패널)의 학교 기준으로 분류한 값이며, 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경우(n=13) 분석에서 제외

2)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구 구성 형태는 보호자용 변수로 청소년(원패널)은 응답하였지만 보호자가 무응답한 사례수 7명 제외

3) 가구 구성 형태 변수의 '기타'(n=11) 사례를 제외

2) 보호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인구구성학적 특성별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1학년의 보호자는 청소년의 성별과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 청소년의 형제·자매 수,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의 성별이 남자이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인식 역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4명 이상일 때와 가구구성 형태가 '부모 모두 + 자녀'인 경우 정서인식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한편 중학교 1학년 보호자의 경우,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호자가 인식하는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보호자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역시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사회적 위축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려는 노력 정도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보호자의 분석 결과, 청소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성별, 형제·자매 수,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정서인식 역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형제·자매수가 4명 이상인 경우와 ‘(한)조부모 + 부모 모두 +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 보호자가 인식하는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도시규모와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보호자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 보호자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보호자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만 도시규모에 따라 보호자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보다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개인화 및 도시화된 삶의 방식에 체화되어 상대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역량 정도를 감소시켰음을 드러내 주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V-2. 보호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구분		중학교 1학년 보호자			고등학교 1학년 보호자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청소년의 성별	남자	1,145	16.40	0.702	1,217	15.69	0.167
	여자	1,130	16.22		1,048	15.65	
도시 규모	대도시	977	16.47	2.868	1,002	15.17	5.460** 중소도시 > 대도시, 읍면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926	16.43		901	16.01	
	읍면지역	370	15.60		351	16.12	

구분		중학교 1학년 보호자			고등학교 1학년 보호자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청소년의 형제자매수 (본인 포함)	1명	349	16.16	0.340	317	15.72	0.358
	2명	1,371	16.40		1,383	15.73	
	3명	482	16.12		490	15.43	
	4명 이상	73	16.52		75	15.99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하	321	17.50	6.916** 하 > 보통, 하 > 상	325	17.04	10.801*** 하 > 보통
	보통	1,690	16.10		1,711	15.35	
	상	259	16.22		228	16.14	
가구구성 형태	부모 모두 + 자녀	1,928	16.45	1.531	1,854	15.63	1.275
	한 부모 + 자녀	137	15.43		187	15.47	
	(한)조부모 + 자녀	13	15.15		14	13.50	
	(한)조부모 + 부모 모두 + 자녀	139	15.79		160	16.54	
	(한)조부모 + 한 부모 + 자녀	48	15.38		45	15.82	

* p<.05, ** p<.01, *** p<.001

- * 주: 1) 도시 규모 항목은 청소년(원패널)의 학교 기준으로 분류한 값이며, 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경우(n=13) 분석에서 제외
 2)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구 구성 형태는 보호자용 변수로 청소년(원패널)은 응답하였지만 보호자가 무응답한 사례수 7명 제외
 3) 가구 구성 형태 변수의 '기타'(n=11) 사례를 제외

3) 형제·자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형제·자매에 대한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형제·자매는 성별, 도시규모, 형제·자매 수, 가구 구성형태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여자가 남자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거나 형제·자매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정서인식 역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구성 형태가 '(한)조부모 + 자녀'인 경우에 그 외의 특성에 비해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의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보호자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형제·자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 분석 결과, 성별, 도시규모, 형제·자매 수, 가구 구성 형태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 정도만 비교해본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거주하는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형제·자매수가 2명인 경우에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한)조부모 + 부모 모두 + 자녀’의 가구구성 형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형제·자매의 경우,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보통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청소년과 보호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IV-3. 형제·자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구분		중학교 1학년 형제·자매			고등학교 1학년 형제·자매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성별	남자	467	15.81	-1.038	417	15.54	-0.678
	여자	478	16.18		431	15.80	
도시 규모	대도시	418	15.85	0.233	356	15.58	0.401
	중소도시	390	16.11		355	15.62	
	읍면지역	134	16.04		137	16.07	
형제자매수 (본인 포함)	2명	604	15.92	2.566	523	15.97	1.929
	3명	295	15.89		294	15.18	
	4명 이상	46	17.74		31	15.32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하	137	17.07	3.199* 하 > 보통	123	16.99	4.096* 하 > 보통
	보통	708	15.82		641	15.42	
	상	99	15.82		84	15.69	

구분		중학교 1학년 형제·자매			고등학교 1학년 형제·자매		
		사례수 (명)	평균 (점)	t/F	사례수 (명)	평균 (점)	t/F
가구구성 형태	부모 모두 + 자녀	829	16.03	0.467	713	15.65	0.526
	한 부모 + 자녀	40	16.45		62	15.53	
	(한)조부모 + 자녀	2	19.50		5	13.00	
	(한)조부모 + 부모 모두 + 자녀	58	15.43		58	16.36	
	(한)조부모 + 한 부모 + 자녀	13	16.38		10	16.00	

* p<.05, ** p<.01, *** p<.001

* 주: 1) 도시 규모 항목은 청소년(원패널)의 학교 기준으로 분류한 값이며, 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난 경우(n=13) 분석에서 제외

2)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구 구성 형태는 보호자용 변수로 청소년(원패널)은 응답하였지만 보호자가 무응답한 사례수 7명 제외

3) 가구 구성 형태 변수의 '기타'(n=11) 사례를 제외

4) 소결

본 절에서는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형제·자매 수,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균의 정도도 대상별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가정 내의 형제·자매 수와 가구구성 형태와 같은 인구구성학적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의 횟수와 대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예측해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발달과 변화는 단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만으로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본 절의 분석은 기술적 분석으로 다른 심리적 요소 혹은 사회·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도출된 결과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과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특성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분석 결과는 모든 분석 대상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모든 집단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론 본 절의 분석에서는 다른 요인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수준이라는 특성 변인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 정도만을 살펴본 결과이기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는 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인 기능을 윤택하게 수행하는 타인을 관찰하고 이를 모델링하려는 본능적인 생존 기제가 활발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Bandura, 2006). 이에 따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정서인식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는 사회적 위축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인식하려는 노력 정도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가정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의 분석 결과,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과 보호자의 경우는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 비해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눈여겨 볼 점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교급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심리·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 특성 변화에 따른 결과라 예상해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직후의 시기이며, 해당 시기는 발달단계와 환경 적합도(stage-environment fit)가 불일치한 단계로 부적응의 양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다(김성일, 2008; Eccles, Early, Fraser, Belansky, & McCarthy, 1997). 다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이러한 부적합도를 완화시켜 적응적 정서인식 역량을 유지할 수 있게 작용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고 신체와 정서가 발달함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이후 성취 중심의 학습 체제 환경에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성취 평가 중심의 환경 변화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의 참여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관계

1)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도출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적절한 잠재집단 모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 개수를 2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 증가시키면서 모형적합도 지수와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수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IV-4>, <표 IV-5>와 같다. 우선 정보지수(AIC, BIC, SA-BIC)에 대해서는 잠재집단 수가 변화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다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지점을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Jedidi, Jagpal, & DeSarbo, 1997). 그 결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모두 잠재집단 수가 3개일 때 정보지수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다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모형비교 검증 결과(LMR 검증)에 따라서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해당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중1 $p=0.0018$, 고1 $p < .001$). 또한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의 경우에도 잠재집단 수가 3개일 때 중학교 1학년 0.905, 고등학교 1학년 0.866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각 모형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 중1, 고1 집단에서 모두 잠재집단 수가 4개 이상인 모형에서 5% 미만의 분류율이 확인되었다(Jung & Wickrama, 2008). 이러한 분류 기준 결과와 함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1과 고1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IV-4.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중1)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정보지수	AIC	14352.19	14192.4	14109.34	14073.53
	BIC	14399.81	14259.1	14195.07	14178.31
	SA-BIC	14368.06	14214.6	14137.9	14108.44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모형비교 검증	LMR test(<i>p</i>)	<.001	0.0018	0.0036	0.0819
분류의질	entropy	0.963	0.905	0.926	0.880
분류율(% (n))	1집단	28.9(250)	23.1(200)	1.7(15)	8.6(74)
	2집단	71.1(615)	11.7(101)	22.7(196)	21.7(188)
	3집단		65.2(564)	11.3(98)	1.6(14)
	4집단			64.3(556)	8.2(71)
	5집단				59.9(518)

표 IV-5.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고1)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정보지수	AIC	12920.26	12702.9	12639.96	12606.38
	BIC	12966.6	12767.8	12723.38	12708.34
	SA-BIC	12934.85	12723.4	12666.22	12638.48
모형비교 검증	LMR test(<i>p</i>)	<.001	<.001	0.0324	0.3814
분류의질	entropy	0.954	0.866	0.873	0.887
분류율(% (n))	1집단	27.6(210)	23.7(180)	4.3(33)	2.1(16)
	2집단	72.4(551)	56.0(426)	24.4(186)	16.6(126)
	3집단		20.4(155)	18.1(138)	24.4(186)
	4집단			53.1(404)	4.1(31)
	5집단				5.3(402)

최종모형으로 도출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은 전체의 23.1%를 차지하며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1.7%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집단이 소속되어 있고 모두 중간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을 보여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65.2%로 가장 많은 사례가 포함된 집단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에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표 IV-6), [그림 IV-1] 참조).

한편,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의 23.7% 사례가 소속된 집단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여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중간 수준을 보이는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전체의 20.4%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집단이 소속된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가장 높은 소속비율인 전체의 56.0%의 사례가 속한 집단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모두 20 정도의 높은 값을 보여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표 IV-7〉, [그림 IV-2] 참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특성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모두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이 모두 높은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모두 중간 수준인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잠재집단 분류 결과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그룹화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나아가,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잠재집단 간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소속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집단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모두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소속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에서 모두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소속된 사례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6.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중1)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
청소년	8.272	14.439	19.260
보호자	7.909	14.298	20.774
형제자매	8.603	13.304	19.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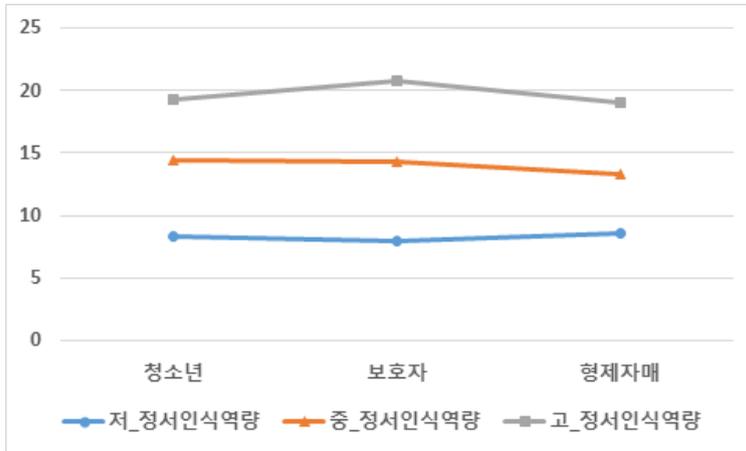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중1)

표 IV-7.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고1)

	저_정서인식 역량	중_정서인식 역량	고_정서인식 역량
청소년	7.927	14.862	19.953
보호자	7.602	15.447	20.789
형제자매	8.025	15.144	1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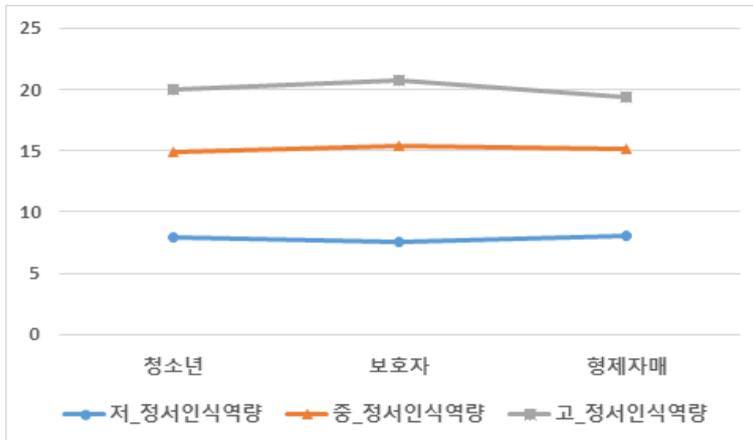


그림 IV-2.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잠재집단 특성(고1)

2)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질적 특성을 갖는 잠재집단의 개인·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분석 결과 개인, 가정, 학교 영역의 개인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 학업 관련 요인 등 다양한 개인·환경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영역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행복감, 창의성,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협동심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보다 행복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타인에 대한 협동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들에서도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만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과 사회적 위축의 잠재집단 간 차이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공격성과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위축 정도의 경우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내포하고 있는 공격적이고 부정적 신체증상 등 내·외적 부정적 심리정서가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수록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타인을 관찰하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본능적 생존 기제가 활발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Bandura, 1997).

한편 개인 영역의 학습 심리적 요인으로 학업무기력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학업무기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학습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김요셉 외, 2011; 서인균, 이연실, 2017).

다음으로 가정 영역의 사회적 관계 변수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 변수들에서 눈에 띄는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 정도,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과 정서적 역량 함양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보호자의 양육방식 및 정서표현, 형제자매 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인숙 외, 2010; 김재엽, 정윤경, 2007; 유지연, 황혜정, 2017; Rioseco, Warren, & Daraganova,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상호작용 등은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과 사회·정서 발달에 지속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 영역의 학교에서의 경험 및 학습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정서인식 역량과 긴밀한 관련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친구 관계 정도에 따라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중요한 애착의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이미숙, 민하영, 2013)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IV-8.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중1)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행복감	3.100(0.470)	3.257(0.611)	3.220(0.554)	5.073** (3) > (1)
	심리 정서적 특성	0.125(1.926)	0.594(2.554)	1.188(3.102)	15.877*** (3) > (1)
	삶의 만족도	2.650(0.430)	2.818(0.547)	2.805(0.563)	8.825*** (2) > (1), (3) > (1)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자아존중감	3.176(0.362)	3.490(0.497)	3.455(0.459)	41.069*** (2) > (1), (3) > (1)	
	협동심	2.694(0.562)	2.906(0.503)	2.985(0.501)	23.637*** (2) > (1), (3) > (1)	
	주의집중	2.221(0.506)	2.024(0.570)	2.145(0.590)	4.059* (1) > (2)	
	공격성	2.131(0.537)	1.883(0.587)	1.886(0.579)	14.262*** (1) > (2), (1) > (3)	
	신체증상	1.907(0.541)	1.726(0.571)	1.787(0.587)	4.366* (1) > (2), (1) > (3)	
	사회적위축	2.117(0.593)	1.984(0.673)	2.204(0.787)	4.653* (3) > (2)	
학습 심리적 요인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3.610(0.749)	3.554(0.932)	3.677(0.944)	1.020	
	학업성취 만족도	3.665(0.765)	3.683(0.969)	3.679(1.007)	0.025	
	학업무기력	2.166(0.426)	2.044(0.452)	1.857(0.492)	33.732*** (1) > (3), (2) > (3)	
가정	사회적 관계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4.095(1.286)	4.505(1.426)	4.443(1.470)	5.645** (2) > (1), (3) > (1)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2.341(2.222)	3.992(2.232)	4.775(2.984)	73.226*** (2) > (1), (3) > (1), (3) > (2)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주말)	4.091(3.715)	7.568(4.188)	8.993(4.405)	116.006*** (2) > (1), (3) > (1), (3) > (2)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	3.123(0.703)	3.399(0.627)	3.366(0.579)	10.271*** (2) > (1), (3) > (1)
		부모관계	2.926(0.488)	3.329(0.505)	3.318(0.550)	47.341*** (2) > (1), (3) > (1)
학교	학교 에서의 경험	교내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1.175(0.630)	1.604(1.141)	2.082(1.311)	81.655*** (2) > (1), (3) > (1), (3) > (2)
		교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1.055(0.350)	1.158(0.612)	1.154(0.586)	4.376* (3) > (1)
	학습 심리적 요인	학교생활 만족도	3.705(0.583)	3.832(0.895)	4.023(0.893)	16.339*** (3) > (1)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	2.908(0.489)	3.017(0.502)	3.019(0.490)	3.945* (3) > (1)
		교사관계	2.771(0.497)	2.834(0.502)	2.824(0.499)	0.918

* p<.05, ** p<.01, *** p<.001

* 주: 1)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Welch 검정을 통해 분석

2)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 Scheffe,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Tamhane의 T2 방법을 통해 사후검정 실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 분석 결과, 개인, 가정, 학교 영역의 다양한 개인·환경 요인에 따라 잠재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IV-9) 참조. 각 개인, 가정, 학교 영역에 따라 세부 요인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영역에서 중학교 1학년 집단과 유사하게 창의성, 자아존중감, 협동심과 같은 긍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부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변수인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도 잠재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1 집단과는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급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능력이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몸과 마음의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축 정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집단과 유사하게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정도가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개인 영역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함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에 대해서는 중1 집단과 유사하게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낮을수록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점은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와 같은 학업 관련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중1 집단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후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도리어 정서인식 역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정 영역의 사회적 관계 변수와 관련하여 중1 집단과 유사하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와의 관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잠재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긍정적이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요인 중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계 정도가 청소년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재엽, 정운경, 2007). 이에 따라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 및 정서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영역의 개인·환경 요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1 집단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등의 자기존중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보고한 한상철 외(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대표적 사회적 관계로 친구 관계 정도에 따라 잠재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1 집단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IV-9.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 차이 분석(고1)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개인	심리 정서적 특성				
	행복감	3.044(0.434)	3.155(0.524)	3.075(0.552)	2.198
	창의성	0.417(1.920)	0.994(2.590)	1.228(3.305)	7.548*** (3) > (1)
	삶의 만족도	2.620(0.388)	2.655(0.483)	2.586(0.571)	1.088
	자아존중감	3.186(0.341)	3.343(0.375)	3.406(0.445)	22.011*** (2) > (1), (3) > (1)
	협동심	2.828(0.514)	2.858(0.523)	3.066(0.512)	18.009*** (3) > (1), (3) > (2)
	주의집중	2.140(0.533)	2.022(0.590)	2.145(0.573)	2.833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가정	학습 심리적 요인	공격성	2.018(0.564)	1.714(0.564)	1.839(0.588)	11.918*** (1) > (2), (1) > (3)
		신체증상	1.861(0.539)	1.710(0.553)	1.859(0.596)	4.202* (3) > (2)
		사회적위축	2.072(0.538)	1.992(0.681)	2.219(0.747)	7.148*** (3) > (1), (3) > (2)
	학습 심리적 요인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3.478(0.681)	3.297(0.704)	2.974(0.885)	27.568*** (1) > (3), (2) > (3)
		학업성취 만족도	3.433(0.694)	3.303(0.751)	2.765(1.094)	44.450*** (1) > (3), (2) > (3)
		학업무기력	2.113(0.429)	2.010(0.505)	1.912(0.505)	11.120*** (1) > (3)
	사회적 관계	부모님과 대화시간	3.989(1.196)	4.194(1.244)	4.256(1.542)	2.716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1.957(1.672)	2.761(1.494)	3.025(2.352)	21.111*** (2) > (1), (3) > (1)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주말)	3.669(3.232)	5.459(3.123)	6.599(4.311)	42.231*** (3) > (1), (3) > (2), (2) > (1)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빈도		3.257(0.679)	3.409(0.559)	3.339(0.576)	2.495	
부모관계		2.878(0.509)	3.319(0.473)	3.302(0.494)	51.714*** (2) > (1), (3) > (1)	

개인·환경 요인		(1) 저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2) 중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3) 고 정서인식 역량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학교	학교 에서의 경험	교내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1.156(0.494)	1.432(0.919)	2.585(1.390)	173.197*** (3) > (1), (3) > (2), (2) > (1)
		교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	1.061(0.283)	1.058(0.365)	1.176(0.654)	5.182** (3) > (1), (3) > (2)
	학습 심리적 요인	학교생활 만족도	3.561(0.756)	3.639(0.692)	3.843(0.892)	9.007*** (3) > (1), (3) > (2)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	2.942(0.510)	3.006(0.428)	3.079(0.482)	5.102** (3) > (1)
교사관계		2.712(0.466)	2.766(0.389)	2.791(0.509)	1.760	

* p<.05, ** p<.01, *** p<.001

* 주: 1)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Welch 검정을 통해 분석

2)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 Scheffe,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Tamhane의 T2 방법을 통해 사후검정 실시

3) 소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정서가 바람직하게 발달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Furman & Buhrmester, 1985).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자와 형제 자매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정서인식 역량 함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보호자와 형제·자매에 주목하여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이전효과, 형제자매 효과 등 아동·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라 잠재 유형을 구분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간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분류한 결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의 세 집단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모두 높은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잠재집단 분류 결과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그룹화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나아가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처럼 세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하게 집단화된 분석결과는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경험하는 청소년과 형제·자매는 정서적 공감, 교류 등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작은 사회범주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큰 범주의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의 역동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Skinner, Johnson & Snyder, 2005).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질적 특성을 갖는 잠재집단의 개인·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집단 간 개인, 가정, 학교 영역의 청소년의 개인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 학업 관련 요인 등 다양한 개인·환경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인, 가정, 학교 영역에 따라 세부 요인별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개인 영역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잠재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아존중감 및 협동심과 같은 긍정적 심리·정서적 변수와 더불어 공격성, 사회적 위축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잠재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 및 협동심과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타인에 대한 협동의식 정도에 대해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적 정서인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정도는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나, 중1과 고1 집단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중1 집단에서는 ‘저_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공격성,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1 집단에서는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 후 가정 인팍의 환경 변화가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몸과 마음의 부정적 정서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 개인의 정서인식 역량이 아닌 보호자, 형제·자매 정서인식 역량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족관계에서의 환경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이후 성취 중심의 학습 환경의 변화가 부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과 사회 교류 기회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중1과 고1 집단에서 모두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_정서인식 역량 집단’ 보다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정도가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 학업량의 증가, 성취 평가 중심의 학습 체제 변화를 한 번에 경험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위축 정도를 크게 경험할수록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타인을 관찰하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하는 본능적 생존 기제가 활발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Bandura, 1997).

한편 개인 영역의 학업성취도,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낮을수록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학습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김요셉 외, 2011; 서인균, 이연실, 2017). 다만 주목할 점은 중1 집단과는 다르게 고1 집단에서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와 같은 학업 관련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고_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진학 후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도리어 정서인식 역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만약 학업을 내재적 목표가 아닌 외재화된 목표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면 정서인식 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임계치가 높아지게 되어 생활에서의 긍정적 정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김성수, 2015), 이에 따라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가 도출되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 영역의 사회적 관계 변수와 관련하여 중1과 고1 집단 모두 부모와의 관계 변수들에서 눈에 띄는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긍정적이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1 집단에서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인숙 외, 2010; 김재엽, 정윤경, 2007; 유지연, 황혜정, 2017; Rioseco et al.,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한국은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서양의 문화권과는 달리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의존적이며 그 심리적 유대(bonding)가 매우 강하다. 이렇듯 강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토대로 한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정서인식 역량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끝으로 학교 영역의 사회적 관계, 활동 경험 및 학습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친구 관계 정도에 따라 중1과 고1 집단에서 모두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1과 고1 집단에서 모두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권일남 외, 2008). 즉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은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확산 및 사회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본 연구는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청소년에게 필요 불가결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사회정서역량(김현진 외, 2020)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개수를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변화시켜가며 모형적합도와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첫째,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10>과 <표 IV-11>과 같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를 살펴보면,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감소폭이 줄어드는 지점(elbow point)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Jedidi et al., 1997).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모두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적합도 값이 감소하는 정도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의 경우 잠재집단의 개수가 2개일 때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집단은 .80에 근접하여 분류의 정확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MR 검증과 조정된 LMR 검증결과, 중1 청소년의 잠재집단 모형은 잠재집단의 개수가 5개로 증가할 때까지 모든 모형에서 근접 모형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1 청소년의 잠재집단 모형의 경우, 잠재집단의 개수가 3개로 증가할 때까지 모든 모형에서 이전 모형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4개인 모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각 모형의 잠재집단 분류율을 비교한 결과, 잠재집단의 개수가 4개 이상인 모형에서 분류율이 5% 미만인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Wickrama, 2008)(<표 IV-12>, <표 IV-13> 참조). 이상의 다양한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IV-10.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중1)

잠재집단 수	AIC	BIC	Sample adjusted BIC	entropy	LMR test (p)	Adjusted LMR test (p)
2	31547.301	31638.977	31588.142	0.882	0.000	0.000
3	30870.928	30996.983	30927.085	0.765	0.000	0.000
4	30603.925	30764.358	30675.397	0.781	0.000	0.000
5	30469.352	30664.163	30556.139	0.796	0.006	0.006
6	30399.251	30628.440	30501.353	0.780	0.094	0.098

표 IV-11.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별 모형적합도(고1)

잠재집단 수	AIC	BIC	Sample adjusted BIC	entropy	LMR test (p)	Adjusted LMR test (p)
2	31366.762	31458.367	31407.532	0.881	0.000	0.000
3	30720.089	30846.046	30776.149	0.759	0.000	0.000
4	30541.527	30701.837	30612.876	0.772	0.112	0.115
5	30353.149	30353.149	30439.786	0.774	0.001	0.001
6	30297.061	30526.075	30398.988	0.790	0.001	0.001

표 IV-12. 잠재집단별 분류율(중1)

잠재집단 수	1	2	3	4	5	6
2	0.324	0.676				
3	0.324	0.469	0.207			
4	0.317	0.196	0.444	0.043		
5	0.184	0.316	0.434	0.039	0.028	
6	0.171	0.040	0.432	0.287	0.029	0.040

표 IV-13. 잠재집단별 분류율(고1)

잠재집단 수	1	2	3	4	5	6
2	0.361	0.639				
3	0.363	0.355	0.282			
4	0.240	0.038	0.366	0.356		
5	0.253	0.081	0.279	0.355	0.032	
6	0.238	0.015	0.291	0.344	0.080	0.032

최종적으로 도출된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의 특징은 각각 [그림 IV-3], <표 IV-14>와 [그림 IV-4], <표 IV-15>와 같다. 이때 그림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정서역량의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 하위요소와 정서인식 하위요소 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특성에서 정서인식 하위요소 수준의 양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명은 사회정서역량과 정서인식의 양상이 모두 표현되도록 명명하고자 한다.

우선, 중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가장 많은 청소년 비율인 46.9%가 소속되어 있으며,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과 관련된 지표의 Z점수가 -0.5~0사이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정서인식의 경우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전체의 32.4%가 속한 집단으로,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과 관련된 지표는 평균 수준이나, 정서인식 역량이 특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20.7%의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 모든 지표에서 0.5이상을 보여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특히 세 번째 집단은 창의성과 끈기와 관련된 지표에서 0.8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과 관련된 지표는 평균 수준이나 정서인식 역량이 -1.16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해당 집단에는 가장 많은 청소년 비율인 36.3% 정도의 청소년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은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으로 35.5% 정도의 청소년이 속한 집단으로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소속비율이 유사하였다. 이 집단은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의 수준은 낮은 편이나 정서인식 역량의 경우 잠재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셋째, 전체의 28.2%가 속한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은 모든 지표에서 Z 점수가 0.5~0.6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양상은 중1과 고1 청소년 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정서역량의 잠재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역량은 정서인식 역량으로 이에 따라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존재하였다. 한편, 잠재집단 간 소속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급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1 청소년의 경우,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1 청소년은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소속된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1 청소년의 잠재집단 중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이 평균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창의성과 끈기가 높은 집단이 나타난 점은 특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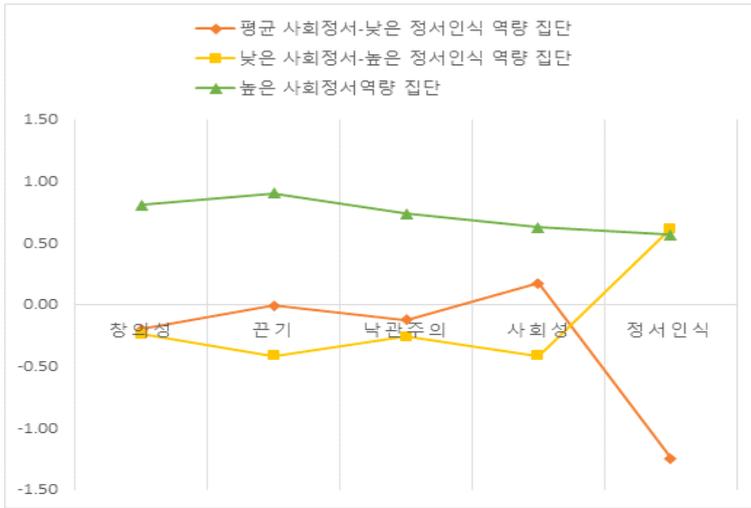


그림 IV-3.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특성(중1)

표 IV-14. 잠재집단별 사회정서역량 평균(중1)

잠재집단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	정서인식
평균 사회정서-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0.200	-0.010	-0.125	0.172	-1.248
낮은 사회정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0.242	-0.421	-0.261	-0.419	0.615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	0.805	0.898	0.734	0.624	0.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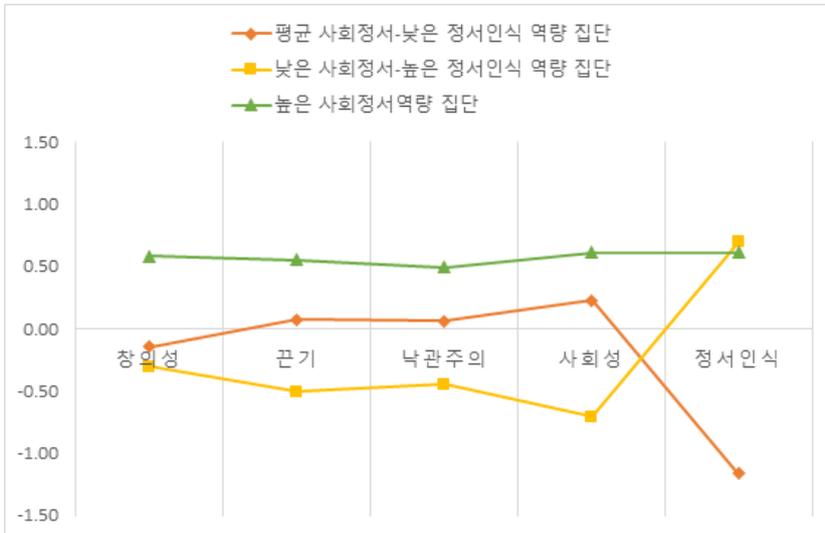


그림 IV-4.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특성(고1)

표 IV-15. 잠재집단별 사회정서역량 평균(고1)

잠재집단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	정서인식
평균 사회정서-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0.144	0.075	0.062	0.227	-1.162
낮은 사회정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0.309	-0.510	-0.448	-0.706	0.692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	0.579	0.554	0.492	0.609	0.608

2)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요인 탐색

본 연구에서는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 집단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설명변수 중 중요도 지수가 높은 30개 변수(약 상위 10%)를 중요도 지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IV-16>과 <표 IV-17>과 같다.

중요도 지수 상위 10% 변수와 잠재집단 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 의존성 도표는 각각 부록(그림 1~그림 6 참조)에 제시하였다. 부분 의존성 도표는 주요 변수와 잠재집단 분류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변수의 분류 확률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우선, 중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행복감, 신체증상 등 심리·정서적 특성 관련 변수가 중요도 지수가 높은 30개 변수 중 33%정도(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변수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나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정서인식 역량 외에는 상대적으로 모든 지표 수준이 낮은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학교 적응이나 학교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배은경, 2011). 즉,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 및 심리적 안녕감이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등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여가시간 관련 변수가 중요도 지수가 높은 상위 20% 정도(6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따라 특정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주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일에 운동이나 신체활동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우울,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 불안감 등 부정적인 정서는 낮추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손진희, 김지민, 2020). 15세~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 중 취미오락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문화체육관광부, 2021), 해당 활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의 정서와 욕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인 정서인식 역량이 보다 높은 집단으로의 분류 확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경우, 신체활동 시간이 늘어난 집단의 사회정서역량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우연경 외(202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셋째, 학업무기력, 학업 열의, 학습시간 등 학습관련 변수(약 16.7%, 5개)가 집단 분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열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업 무기력 정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한편,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나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습 관련 요인 중,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정서역량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정서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다(김현진 외, 2020).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성취도 외에도 학업무기력이나 학업열의와 같은 학습·심리적 특성에도 관련성이 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중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집단 분류에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 사회적 관계성 관련 변수가 각각 약 13.3%(4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 관련하여, 주말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함양과도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나 가족의 지지와 긍정적인 양육태도,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인 관계가 사회정서역량 발달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형석, 김재철, 2021, 2022; 우연경 외, 2021; Yue, 신태섭, 2021; Russell, Lee, Spieker, & Oxford, 201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도, 진로관련 변수와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 월평균 가구 소득 등 청소년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 변수가 중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집단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변수별로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나 대체적으로 직업·진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평균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한 반면,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반면,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의 주요 설명변수(중1)

순서	변수명	변수내용
1	WEEKN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주말)
2	YTIM1K02w4	여가시간: 주말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3	WEEK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4	YFUR2A04w4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친척·친지
5	YEDU3A01w4	교사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6	YFUR2A05w4	진로 관련 대화 빈도: 학교 선생님
7	YACT1A05w4	연간 참여 횟수: 직업진로 활동
8	YPSY2A04w4	행복감: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9	YPSY4E03w4	우울: 걱정이 많다
10	YTIM1K01w4	여가시간: 평일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11	YINT2B12w4	학업 무기력: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12	YPSY3A05w4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3	YTIM1L02w4	여가시간: 주말_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14	YPSY4C06w4	신체증상: 자주 피곤하다
15	YTIM1N01w4	여가시간: 평일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16	YPSY3A03w4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7	YPSY2A03w4	행복감: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18	YTIM1D01w4	부모님 대화시간(평일)
19	YTIM1E02w4	학습시간: 주말_학원 및 과외 시간
20	YINT2B02w4	학업 무기력: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1	YPSY4E09w4	우울: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22	YPSY3A04w4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3	PINCOMEW4	월 평균 가구 소득
24	YACT1A01w4	연간 참여 횟수: 문화예술 활동
25	YINT2A11w4	학업 열의: 공부에 자신이 있다

순서	변수명	변수내용
26	YTIM1J01w4	여가시간: 평일_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27	YPSY3A01w4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8	YTIM1N02w4	여가시간: 주말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29	YPSY3A10w4	자아존중감: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1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서 우울, 주의집중, 신체증상 등 정서적 문제 관련 변수가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가장 큰 비중(2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감과 피곤함을 많이 느낄수록, 주의집중 정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전반적으로 정서인식 역량 능력 외에 모든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인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둘째, 고1 청소년의 경우, 중1 청소년 집단과 비교할 때, 여가시간과 학업 관련 변수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중1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가시간과 관련된 변수가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큰 비중(23.3%)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평일이나 주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1 청소년 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업성취 만족도, 학습시간 등 학업 관련 변수가 중요도 지수가 높은 상위 30개 변수 중 20.0%(6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학기 학업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일정 시간 이상(평일 주당 5시간 이상)일 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으며(김현진 외, 2020), 학습활동 시간과 사회정서역량 간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우연경 외,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중1 청소년 집단과 마찬가지로, 진로 관련 변수와 부모 관련 변수가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집단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친척이나 친지와 진로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주중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서 역량 수준이 높은 '높은 사회정서 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의존도, 월평균 가구소득, 교내 동아리 참여 횟수, 일주일 평균 원격수업 일수, 일주일 평균 등교수업 일수 등 청소년 특성, 가정 배경 및 학교 특성 변수가 중요도 지수가 높은 변수로 도출되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변화와 함께 인터넷 의존도를 증가시켰으며(이소영, 최혜진, 2021), 이러한 사회정서적 변화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원격수업이나 등교수업 기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김유리, 2021).

표 IV-17.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의 주요 설명변수(고1)

순서	변수명	변수내용
1	WEEKN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주말)
2	YACT2A01w4	연간 참여 횟수: 교내 공식 동아리
3	YPSY4E03w4	우울: 걱정이 많다
4	YPSY4C06w4	신체증상: 자주 피곤하다
5	YACT1A05w4	연간 참여 횟수: 직업진로 활동
6	YFUR2A04w4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친척·친지
7	WEEK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8	YTIM1M01w4	여가시간: 평일_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9	YPSY4E01w4	우울: 기운이 별로 없다
10	YTIM1K02w4	여가시간: 주말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11	YTIM1K01w4	여가시간: 평일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12	YPSY4E06w4	우울: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13	YPSY4E09w4	우울: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4	YINT1B00w4	학업성취 만족도: 지난 학기 학업성취 만족 수준
15	YTIM1N01w4	여가시간: 평일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16	YTIM1L01w4	여가시간: 평일_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17	YTIM1E02w4	학습시간: 주말_학원 및 과외 시간
18	YTIM1M02w4	여가시간: 주말_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19	YTIM1F02w4	학습시간: 주말_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순서	변수명	변수내용
20	YINT1A00w4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21	YPSY4A03w4	주의집중: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22	YEDU1B02w4	일주일 평균 수업 일수: 지난 학기 일주일 평균 원격수업 일수
23	YTIM1L02w4	여가시간: 주말_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24	YPSY4E08w4	우울: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25	YMDA1C09w4	의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26	YTIM1F01w4	학습시간: 평일_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27	YPSY4E10w4	우울: 모든 일이 힘들다
28	YEDU1B01w4	일주일 평균 수업 일수: 지난 학기 일주일 평균 등교수업 일수
29	PINCOMEw4	월 평균 가구 소득

3) 소결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역량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다. 특히,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은 어떠하며, 이러한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을 분석한 결과,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라 모두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중1과 고1 청소년 집단에서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과 관련된 지표는 평균 수준이나, 정서인식 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과 다른 사회정서역량 지표 수준은 낮은 편이나 정서인식 역량만 높은 특징을 보인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가장 높은 잠재집단으로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이 각각 도출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의 양상이 다른 잠재집단이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이 관련성이 없거나 부적 관련성을 지님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서인식 역량이 공감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실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발현되는 사회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한 김현진 외(2020)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공감역량의 속성과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공감역량은 크게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권기남, 2017; 김혜리 외, 2013; 여태철, 김명섭, 2020)에서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행동과의 정적 관련성이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등 반사회적 행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인식 역량이 실제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중1과 고1 청소년 집단 간 사회정서역량의 전반적인 양상은 유사하였으나, 일부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중1과 고1 청소년 잠재집단 중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가장 높은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을 비교한 결과, 중1 청소년 집단에 비해 고1 청소년 집단에서 창의성, 끈기, 낙관주의, 사회성의 대부분의 지표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다(권희경, 김주아, 박경호, 안해정, 최인희, 2019; 김현진 외, 2020).

다음으로,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및 학업 관련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개인,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과 관련성을 지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인 우울, 신체증상, 주의집중과 관련된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 신체증상, 주의집중 등이 낮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1 청소년 집단에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중에서도 자아존중감과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

과 관련된 변수가 주요 변수로 도출되었으나, 고1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 주의집중, 신체증상과 같은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대화시간 확보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정서 불안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 상담과 심리적 지원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집단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된 집단의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김현진 외, 2020; 우연경 외, 202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부모나 형제·자매, 친지 등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적 수업활동 및 공동체적 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직업·진로활동, 교내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시간 활용 방식과 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김현진 외, 2020).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 비교국 중에서 최하위 권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2019년 기준으로 평일 하루 2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3.4%), 4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비율은 약 20.5%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유민상 외, 2021). 청소년기 여가활동은 급격한 사회·정서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전인적 발달과 성장, 삶의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1과 고1 청소년의 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고1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 관련 변수와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할 때, 교내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협력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박가나, 2009),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비교과 활동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능력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백상현, 2020). 즉,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을 비롯한 체험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소 중 특히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의 여가시간 확보,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및 다양하고 양질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학업 관련 변수로서 기존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학업성취도, 학습시간 외에도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롭게 도출되었다. 학업 열의와 사회정서역량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학업열의가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시간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김나영, 황혜영, 2020), 끈기, 창의성, 정서인식 역량 등의 사회정서역량과도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흥미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및 평가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제5장 논의

- 1. 결과 요약
- 2. 제언 및 시사점
- 3. 결론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 도시규모 등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과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보호자와 형제자매에 주목하여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따른 이질적 잠재집단을 추출하고 도출된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 큰 함의를 지닌 사회정서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후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각 연구내용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13) 제5장의 1절과 2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이, 3절은 전현정 부연구위원,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수준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분석 결과는 모든 분석 대상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분석 결과에서 모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자신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타인을 관찰하고 모델링하여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과 보호자의 경우는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 비해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교급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심리·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 특성 변화에 따른 결과라 예상해볼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진학 이후 성취평가 중심의 학습 체제 변화가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의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간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분류한 결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대한 잠재집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며, 작은 사회범주인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 영역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보다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타인에 대한 협동의식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정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변수에

대해서는 중1과 고1 집단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중1 집단과는 다르게 고1 집단에서는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간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보다 부정적 신체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가정 안팎의 환경 변화와 성취 중심의 학습 환경 변화가 부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과 가족관계에서의 사회 교류 기회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출된 결과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1과 고1 집단에서 모두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을수록 타인을 관찰하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본능적 생존 기제가 활발하게 작용함에 따른 결과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관련성을 지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정서인식 역량 정도와 학교급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차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의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영역의 학습 심리적 요인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만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도리어 정서인식 역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라 추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무기력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고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와 만족도를 지닌 청소년 집단의 정서인식 역량 함양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정 영역의 사회적 관계 변수와 관련하여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긍정적이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1 집단에서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1 집단에 비해 중1 집단에서 부모와의 관계 변수들에서 눈에 띄는 잠재집단 간 차이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의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이 지닌 역할을 인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

가 있으며, 가정 내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등의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영역의 사회적 관계, 활동 경험 및 학습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중1과 고1 집단에서 모두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의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이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며,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과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을 분석한 결과,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라 모두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다른 잠재집단이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와 실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발현되는 사회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인식 역량이 실제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인 우울, 신체증상, 주의집중과 관련된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1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같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주요 변수로 도출되었으나, 고1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 주의집중, 신체증상과 같은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집단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기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적 수업활동 및 공동체적 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직업·진로활동, 교내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여가활동은 급격한 사회·정서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전인적 발달과 성장, 삶의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1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요인으로 학업 관련 변수와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는 반면,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을 비롯한 체험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요소 중 특히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의 여가시간 확보,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및 다양하고 양질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업 관련 변수로서 학업성취, 학업시간과 더불어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고 흥미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및 평가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요 분석결과를 연구내용에 따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V-1]과 같다.

(연구내용 1)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 비교 분석

- 일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주관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인식하려는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에 따라 거주하는 도시 규모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확인됨. 고1 청소년과 보호자는 거주하는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남.

(연구내용 2) 청소년·보호자·형제자매 간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 분석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도출됨.
-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 영역의 학습 심리적 요인으로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 중1 집단에서 부모와의 변수들에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됨.
-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의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내용 3)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 중1과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특성에 따라 비슷한 양상의 잠재집단이 분류되었으나,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 중1 청소년 집단에서는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주요 변수로 도출되었으나, 고1 청소년 집단에서는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됨.
-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집단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고1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 관련 변수와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됨.

그림 V-1. 연구내용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앞서 제시된 각 연구내용에 따라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범주화된다. 먼저 청소년 **개인 측면**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나며, 학교급에 따라 거주하는 도시규모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서인식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는 청소년이 지닌 배경 특성과 학교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심리정서 요인은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차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성취도 평가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학업무기력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학업성취와 만족도를 지닌 집단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인식이 높다는 게 친사회적 사회성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인식 역량이 실제적인 사회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주요 변수로 중1 집단에서는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고1 집단은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심리정서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1 청소년 집단에서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여가시간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 혹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정 측면**으로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며, 작은 사회범주인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에서의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등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학교급에서의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이 지닌 역할을 인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등의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측면**에서의 결과로는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함양에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체적 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이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1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 가능한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양질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상술한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의 범주화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V-2]와 같다.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내며, 학교급에 따라 거주하는 도시 규모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확인됨. •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학업성취도와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주요 변수로 중1 청소년은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고1 청소년은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됨. • 고1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예측 요인으로 여가시간 관련 변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또한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됨.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의 관계 등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함. •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2. 개인, 가정, 학교 범주별 주요 분석 결과

2. 제언 및 시사점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가족, 친구, 교사 등과의 사회관계를 확장하면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서조절 역량이 내면화되는 시기이다(임희수, 박정연, 2002). 점차 사회 소통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회구성원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타인을 고려하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Greenberg, 2004; Salovey et al., 2004). 최근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 상호작용의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리, 배현순, 2020; 이근영 외, 2021). 이는 나아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이에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결손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서인식 역량 정도를 분석하고 밀접한 사회관계 속에서의 정서인식 역량의 다면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 청소년에게 필요불가결로 요구되는 역량인 사회정서역량(김현진 외, 2020)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개인·환경적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언 및 시사점을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측면

(1) 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 인지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과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의 정서

인식 역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자신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타인을 관찰하고 모델링하여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정도를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Bandura, 2006). 또한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도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1 청소년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고1 청소년과 보호자는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급 변화에 따른 심리·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 특성 변화에 따른 결과라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본 분석결과는 다른 요인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수준이라는 특성 변인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 정도만을 살펴본 결과이기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배경 특성과 학교급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닌 배경 특성과 학교급등의 종합적인 고려와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로 요구되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히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권기남, 2017; 김혜리 외, 2013).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인식 역량을 통해 실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사회정서역량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사회정서역량의 진단과 청소년 대상 관찰 및 상담 등을 통해 결손 된 역량 영역을 확인하고 개별 청소년에게 결손 영역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그림 V-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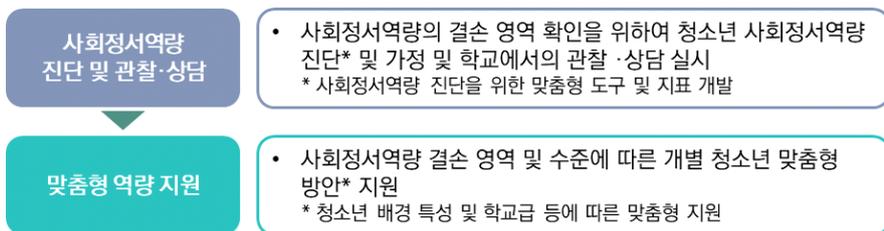


그림 V-3. 사회정서역량 진단 및 지원 방안

(2) 적절한 교육적 개입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만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정서인식 역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학업성취, 학업시간과 함께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업무기력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학업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및 평가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와 만족도를 지닌 청소년 집단의 정서인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상술한 청소년의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학업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특정 집단 맞춤형 교육적 지원 방안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틀이 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추진과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지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방향의 개정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개별화된 학습 경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1.11.24.).

표 V-1.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추진과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추진과제)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 촉진하는 교육 강화	
□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p>[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p>[초·중학교 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활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선택과목(활동) 신설·운영 • 교과별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 등을 활용하여 지역과 연계한 단원을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수업 운영

구분	주요 내용
□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개선 방안] •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시기 및 방법 등을 지역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추진과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 강화] • 학생 성장의 연속선상에서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한 학습과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 교과 이수 경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 설계 활동 운영
□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진로·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인착 지원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 • (지역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의 경우, 인근 고교와 함께 개설하는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출처: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pp.19-30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재인용, 2022.7.20. 인출.

* 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제 중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교육 강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특정 집단 맞춤형 교육적 지원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넓게는 국가적 차원, 좁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적 제도 및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인 시도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가 필수적이며, 지역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수업 및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급, 단위학교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목표 및 지원 방향 등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교급 전환에 따른 연계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타인에 대한 협동의식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정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1 집단과는 다르게 고1 집단에서는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중간 수준의 정서인식 역량 집단보다 부정적 신체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정서인식 역량 정도와 학교급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차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의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주요 변수로 중1 집단에서는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고1 집단에서는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정서인식 역량을 넘어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2021년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결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정서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추진 과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별 청소년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맞춤형 종합 회복 지원을 종합적이고 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사회 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① 학습결손(심리·정서진단) 등 종합 진단을 통해 결손된 영역을 파악하고 난 후 ② 학습결손 회복 지원, ③ 몸과 마음 회복 지원 등 청소년 수준 및 희망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07.29.). 즉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차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진단을 통한 결손 영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V-4) 참조).

종합 진단	결손 영역	맞춤 지원	
심리 정서 진단	심리 정서 사회성	심리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육-Wee센터-외부기관 연계 상담 • 치료비 지원 • 방문 의료 서비스
		사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활동 • 교외체험학습 • 체험활동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재인용

* 주: 「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2021.7.29.)의 p.5 그림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

그림 V-4. 심리·정서 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예시)

청소년들의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의 특성과 심리 정서 및 역량 정도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추진 체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별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관찰과 함께 심리정서 및 역량 정도와 결손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을 확장해가야 할 것이다.

2) 가정 측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공간은 가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수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에서의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토대로 한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이 정서인식, 사회정서역량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주된 가족구성원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따른 잠재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인 보호자와 형제·자매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고 종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체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작은 사회범주인 가족에서의 구성원 간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인식,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등의 물리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이 지닌 역할을 인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가정 내 회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가정 속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등의 모든 가정 구성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결과,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 학교급, 배경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주요 목표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0.10). 즉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등 가정의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서 증진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작은 사회범주인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지원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정 문화 구축
-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 청소년의 학교급, 배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 마련
- 가족구성원 간의 물리적 교류*의 기회 제공
* 구성원 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 시간 확대
- 모든 가족구성원(보호자, 형제자매 등)에게 상호작용 및 교감 기회 제공

그림 V-5. 가정 측면 시사점-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3) 학교 측면

(1)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학교 측면의 분석결과에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함양에 다양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다 다양한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는 곳은 학교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있어 학교 공간에서의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과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중요한 애착의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이미숙, 민하영, 2013).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력적 수업활동 및 공동체적 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 등과 같은 사회성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왕따, 학교폭력 등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회관계를 확장해나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서인식 역량은 사회관계 형성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내외 공식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직업진로활동, 교내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참여 활동 경험이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권일남 외, 2008).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은 정서인식 역량의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청소년의 참여 가능한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및 다양하고 양질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고 활동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사회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민간기업, 청소년훈련시설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youth.go.kr)에서 ‘청소년활동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림 V-6.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youth.go.kr)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는 연간 50만 건 이상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등록되었으며, 홈페이지 접속사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천 2백만 명이 접속하는 등 활발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활동 참여가 이루어져왔다(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록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2.8.15. 인출). 그러나 2020년 이후 프로그램 등록 건수와 접속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과 청소년의 대외적 활동 감소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 수의 감소 등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의 급격한 사회 결손을 경험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고, 청소년 활동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확산 등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와 제공 방식도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과정에서의 참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교육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법교과 학습 주제 개선’을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교육부, 2021.11.24. 재인용). 이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운영 중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 중심 활동’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학교·학급 공동체 중심으로의 자율·자치 활동,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으로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교육부, 2021.11.24.).

이처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은 정서인식 역량의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청소년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도 청소년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적성 등을 파악하고 학교급, 단위학교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동 지원체계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3. 결론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 경로를 통해 사회 문제에 노출될 높은 가능성을 지닌 시기이며, 성인에 비해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인식하는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Garnefski et al., 2002). 즉 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등의 사회관계 형성 전반에 주요한 자원이 되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발달 과업이다. 최근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 관계 맺음 기회의 축소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유리, 배현순, 2020; 이근영 외, 2021), 사회성 결손 등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 보도 자료, 2021.07.29). 이에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정서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정서인식 등의 사회·정서 역량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수준과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보호자와 형제자매에 주목하여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에 따른 이질적 잠재집단을 추출하고 도출된 잠재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점에 큰 함의를 지닌 사회정서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후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범주화되었다. 먼저 청소년 개인 측면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인식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 거주하는 도시 규모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심리정서 요인은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정서인식 역량이 낮은 집단의 학습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1 집단에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성취도 평가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인식이 높다는 게 친사회적 사회성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의 주요 변수로 중1 집단에서는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과 관련된 변수가 나타났으며, 고1 집단은 주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학업열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습 심리적 요인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 혹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정 측면으로는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 주제인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며, 작은 사회범주인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가 눈에 띄게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학교급에서의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 측면에서의 결과로 정서인식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친구와의 관계 등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변수가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에 비해 교내의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이

정서인식 역량 향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1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 관련 변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 가능한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및 다양하고 양질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상술한 주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개인, 가정, 학교 측면의 제언으로 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의 명확한 인지의 필요성, 적절한 교육적 개입,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서인식 역량의 경향성과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 다른 요인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 변인에 따른 정서인식 역량 정도의 차이 등만을 살펴본 결과이기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사회정서역량 수준에 따른 잠재 집단을 분류한 결과는 기존 김현진 외(202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공감역량의 속성과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부분의 지표변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된 반면, 정서인식 역량의 경우 RMET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측정방식과 하위 구인에 따른 특성을 통제한 후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과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설명변수로 정서인식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 두 집단의 특징을 구분하는 요인이 많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명변수가 정서인식 역량의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정서역량이 높거나 낮은 수준을 지닌 집단 간 분류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인식 역량에 차이를 보인 사회정서역량 집단에 주목하여 두 집단이 지닌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결과에 근거한 제언 및 시사점을 개인, 가정, 학교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및 시사점

주요 분석 결과	제언 및 시사점
<p>개인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배경 특성과 학교급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 •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인식 역량과 사회성 수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p>[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 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지닌 배경 특성과 학교급 등의 종합적인 고려와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청소년의 정서인식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사회정서역량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심리적 요인(학업무기력, 학업열의 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 	<p>[적절한 교육적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 맞춤형 수업 및 평가 등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 학교급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차별적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의 심리·정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 요구 	<p>[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 •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서인식과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 확장
<p>가정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사회·정서 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가정 요인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공감 등의 상호작용 변수들 도출 •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더 많은 부모와의 변수들에 대한 잠재집단 간 차이 발생 	<p>[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정 문화 구축 •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족구성원 간의 물리적 교류 기회 제공 • 모든 구성원에게 상호작용 및 교감 기회 제공 • 학교급, 배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 마련
<p>학교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인식 함양에 다양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님 • 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이 교내외 동아리 연간 참여 횟수가 많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줌 	<p>[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협력적 수업활동 및 공동체적 활동 경험 등 제공 <p>[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청소년 활동 참여의 접근성 증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와 제공 방식의 변화 필요 • 개별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적성 등을 파악하고 단위학교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한 학교 활동 지원체제 재구조화 필요

○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 공영숙, 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 21(4), 135-152.
- 권기남(2017). 유아의 정서적·인지적 공감 및 또래 유능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1), 217-231.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권희경, 김주아, 박경호, 안해정, 최인희(2019). **2019 KEDI 학생역량 조사연구 (연구보고 RR 2019-2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희, 김완수, 최인봉, 김미경, 김광규, 박준홍, 김선희, 박종효, 도승이, 장현진(2019).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서교연 2019-5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나영, 손윤희(2022). 고등학생의 수업 인식 및 참여 유형 분석: 자기주도역량 비교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60(1), 25-58.
- 김나영, 황혜영(2020). Lasso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열의 관련 변수 탐색. **교육문화연구**, 26(6), 337-355.
- 김미숙, 이쌍철, 이호준, 김정아, 황지원(2019).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 연구(Ⅲ) (연구보고 RR 2019-2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수(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성일(2008). 학습자 중심의 학제개편: 교육심리학적 공헌. **교육심리연구**, 22(4), 859-880.

- 김소영, 김현지, 이상수(2018).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477-494.
- 김수진, 김미경, 김명화, 정은주, 박종효(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적 역량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RRE 2020-2).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양분, 김난옥(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3), 103-126.
- 김위정(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유리(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 교육 이슈페이퍼(통권 제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유리, 배현순(2020). **코로나19 이후의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서교연 2020-6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유빈, 이지은, 최승주, 신선옥, 이해정, 정현상(2018). **제20차(201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진, 양명희(2011).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상황의 정서 연구. **교육심리연구**, 25(3), 501-521.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김재엽,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정민, 이정희(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15-128.
- 김정은, 박희연(2011). 직업군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8(4), 79-99.
- 김택호,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택호, 서미, 조한익(2005). 청소년의 탄력성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 상담학연구, 6(2), 515-529.
- 김현진, 김미숙, 이선영, 김정아, 김민성, 김준엽, 조운정(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 (연구보고 RR 2020-0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형석, 김재철(2021). 중학교 1 학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8(5), 141-160.
- 김형석, 김재철(2022). 부모 자녀 관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전이 유형과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9(2), 233-255.
- 김혜리, 정명숙, 손정우, 박민, 엄진섭, 문은옥, 천영운, 최현숙, 이수미(2013).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55-275.
- 도중수, 성준모(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273-306.
- 박소영, 정혜원(2021).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예측변수 탐색. **열린교육연구**, 29(1), 239-265.
- 박영신,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 김의철(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배은경(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85-100.
- 배화옥, 강지영(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455-474.
- 백상현(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

- 연구, 14(1), 259-282.
- 서인균, 이연실(2017).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고등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3), 23-51.
- 설민희(2009). 청소년 문화활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1, 140-172.
- 손진희, 김지민(2020).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71-94.
- 양주경(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태철, 김명섭(2020). 인지적·정서적 공감 프로파일에 따른 또래 괴롭힘 태도 및 주변인 참여 역할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21(1), 21-40.
- 오희정, 김갑성(2018). 학생의 인성과 학업성취도 관계의 종단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199-218.
- 우연경, 최정순, 김경령, 노연경(2021).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따른 초·중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특성 (ORM 2021-40-16)**.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민상, 유성렬, 심수진, 류정희, 김혜자, 도남희, 박진아, 구자연, 김대훈, 최창용(20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연구(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0-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유지연, 황혜정(2017).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119-144.
- 유진은(2015).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의 대안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교육평가연구**, 28(2), 427-448.
- 이근영, 김미남, 김성희, 김유리, 서명희, 양경화, 주문희, 최지현(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 (현안보고 2021-03)**.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미숙, 민하영(2013). 초기 청소년이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요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9.
- 이소영, 최혜진(2021).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일상생활 변화 잠재계층유형, 영향요인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53, 401-427.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진현, 이훈진(2006).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1141-1151.
- 임희수, 박정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3(1), 37-54.
- 장영애, 이영자(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 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9.
- 장정주(2012).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147-170.
- 조한익, 이미화(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39-158.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2021).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1-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06). **청소년 코로나 3년의 마음 기록: 방진된 청소년의 심리, 어떻게?**.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2-01.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2014). **청소년심리학(2판)**. 경기: 교육과학사.
- Yue, 신태섭(2021). 중국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사회정서역량 간의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27(1), 285-314.

[인터넷 자료]

- 교육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62204>에서 2022.08.20. 인출.
- 교육부(2020.1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8238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2.08.20.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2021.7.2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

w.do?boardID=294&boardSeq=851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6.10. 인출.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7.20.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05.29. 인출.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안내자료(2022.0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0774>에서 2022.08.10. 인출.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22.08.15. 인출.

제4, 5,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0)에서 2022.07.20.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록 프로그램 운영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2)에서 2022.08.15.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홈페이지. youth.go.kr에서 2022.09.05. 인출.

NYPI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 KCYPS 2018 제1~4차 조사 코드북에서 2022.07.15. 인출.

[외국문헌]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Self-efficacy*

- beliefs of adolescents*, 5(1), 307-337.
- Beidel, D. C., & Turner, S. M. (1987). *Shy children, phobic adults: Nature and treatment of social phobi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rgman, L. R., Magnusson, D., El Khouri, B. M. (2003). *Studying individual development in an interindividual context: A person-oriented approach*. Mahwah, NJ: Psychology Press.
- Block, J. H., Gjerde, P. F., & Block, J. H. (1991). Personality antecedent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18-year-old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26-738.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1-10.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 Breiman, L. (2003). *Manual for setting up, using, and understanding random forest V4.0*. https://www.stat.berkeley.edu/~breiman/Using_random_forest_s_v4.0.pdf에서 2022.04.10. 인출.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Eccles, J. S., Early, D., Fraser, K., Belansky, E., & McCarthy, K. (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263-286.
- Edla, D. R., Mangalorekar, K., Dhavalikar, G., & Dodia, S. (2018). Classification of EEG data for human mental state analysis using Random Forest Classifier. *Procedia computer science*, 132, 1523-153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 Psychology*, 21(6), 1016-1024.
- Garber, J., Zeman, J., & Walker, L. S. (1990). Recurrent abdominal pain in children: Psychiatric diagnoses and par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4), 648-656.

- Garnefski, N., Legerstee, J., Kraaij, V., van Den Kommer, T., & Teerds, J. A. N. (2002).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 comparison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dolescence*, 25(6), 603-611.
- Greenberg, L. S. (2004). Emotion-focuse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1(1), 3-16.
-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Brien, M. U., Zins, J. E., Fredericks, L., Resnik, H., & Elias, M. J.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58(6-7), 466-474.
- Griffiths, P., & Ashwin, C. (2016). Accuracy in perceiving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psychopathology. In J. A. Hall, M. S. Mast, & T. V. West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erceiving others accurately* (pp. 185-20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hes, M. M., & Terrell, J. B. (2007). *The emotionally intelligent team*. San Francisco: Jossey-Bass.
- Jedidi, K., Jagpal, H. S., & DeSarbo, W. S.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1), 39-59.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ebourgeois, V., Dupuy, S., Vintrou, É., Ameline, M., Butler, S., & Bégue, A. (2017). A Combined Random Forest and OBIA Classification Scheme for Mapping Smallholder Agriculture at Different Nomenclature Levels Using Multisource Data (Simulated Sentinel-2 Time Series, VHRS and DEM). *Remote Sensing*, 9, 259.
- Masten, C. L., Guyer, A. E., Hodgdon, H. B., McClure, E. B., Charney, D. S., Ernst, M., Kaufman, J., Pine, D. S., & Monk, C. S. (2008). Recognition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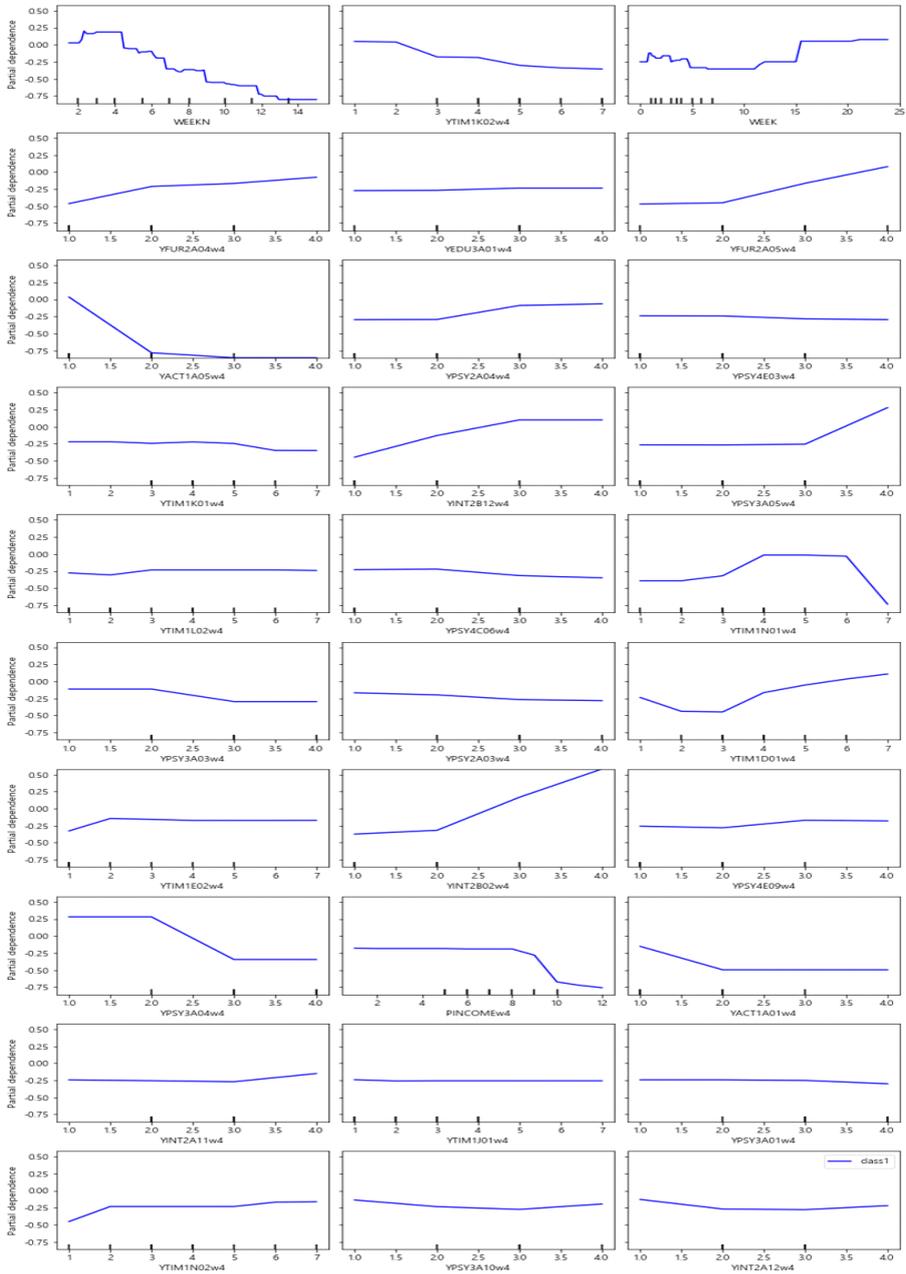
- facial emotions among maltreated children with high r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32(1), 139-153.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 (2004). TARGET ARTICLES: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3), 197-215.
- Merrell, K. M., & Gueldner, B. A.(2010).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OECD (2015). *Skills for Social Progress: The Power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ECD Skills Studies*, https://read.oecd-ilibrary.org/education/skills-for-social-progress_9789264226159-en에서 2022.05.27. 인출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s://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에서 2022.06.10. 인출
- Rioseco, P., Warren, D., & Daraganova, G. (2020). *Children's social-emotional wellbeing: The role of parenting, parents'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Southbank, Vic: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Russell, B. S., Lee, J. O., Spieker, S., & Oxford, M. L. (2016). Parenting and Preschool Self-Regulation as Predictors of Social Emotional Competence in 1st Grad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30(2), 153-16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 Salovey, P., & Grewal, D. (2005).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y Science*, 14(6), 281-285.
- Shim, S. S., Wang, C., & Cassady, J. C. (2013). Emotional well-being: The role

- of social achievement goals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7), 840-845.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 Weiss, D. D., & Last, C. G. (2001). Developmental variations in the prevalence and manifestation of anxiety disorders. In Vasey, M. W.,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27-4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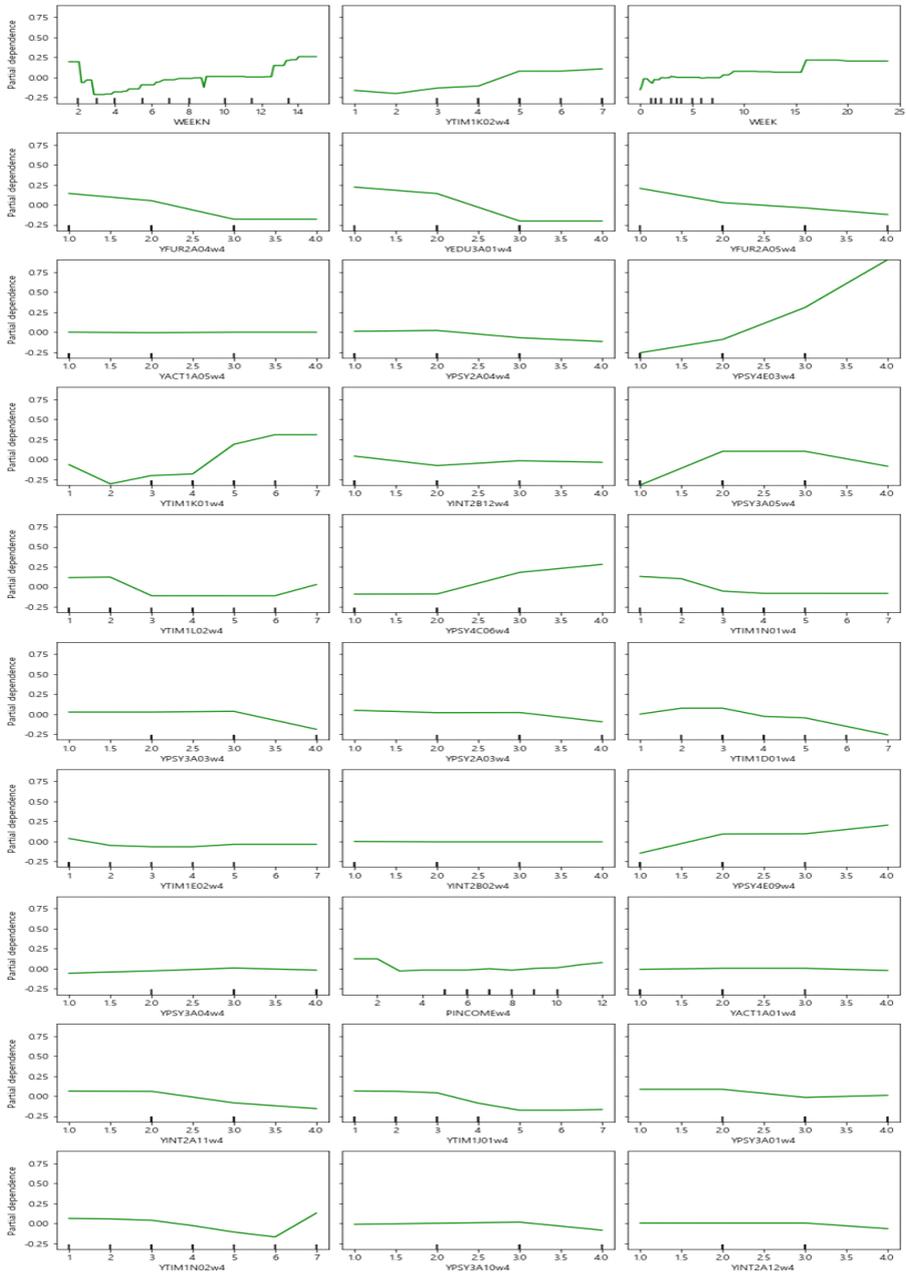
○ — 부 록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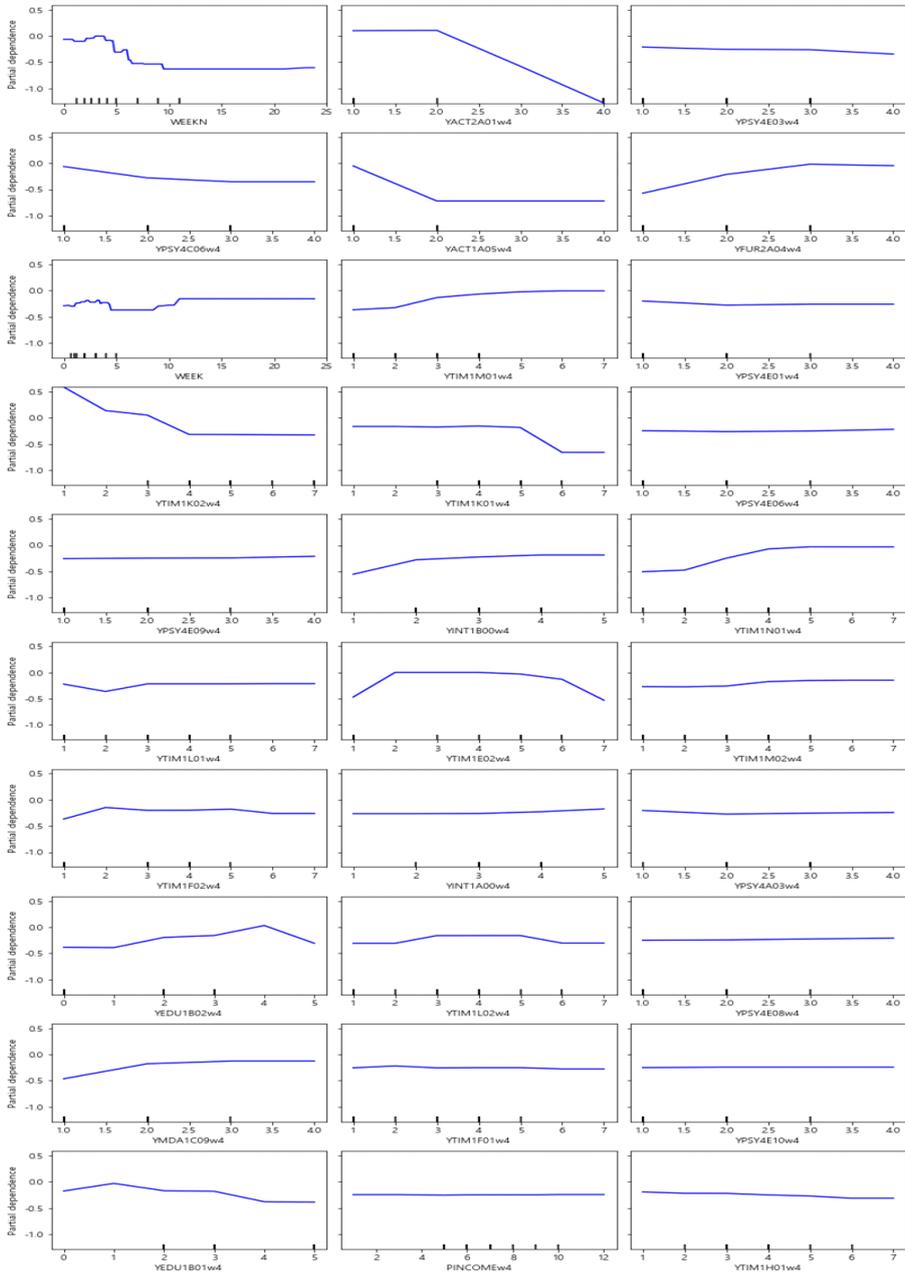
1. 주요 설명 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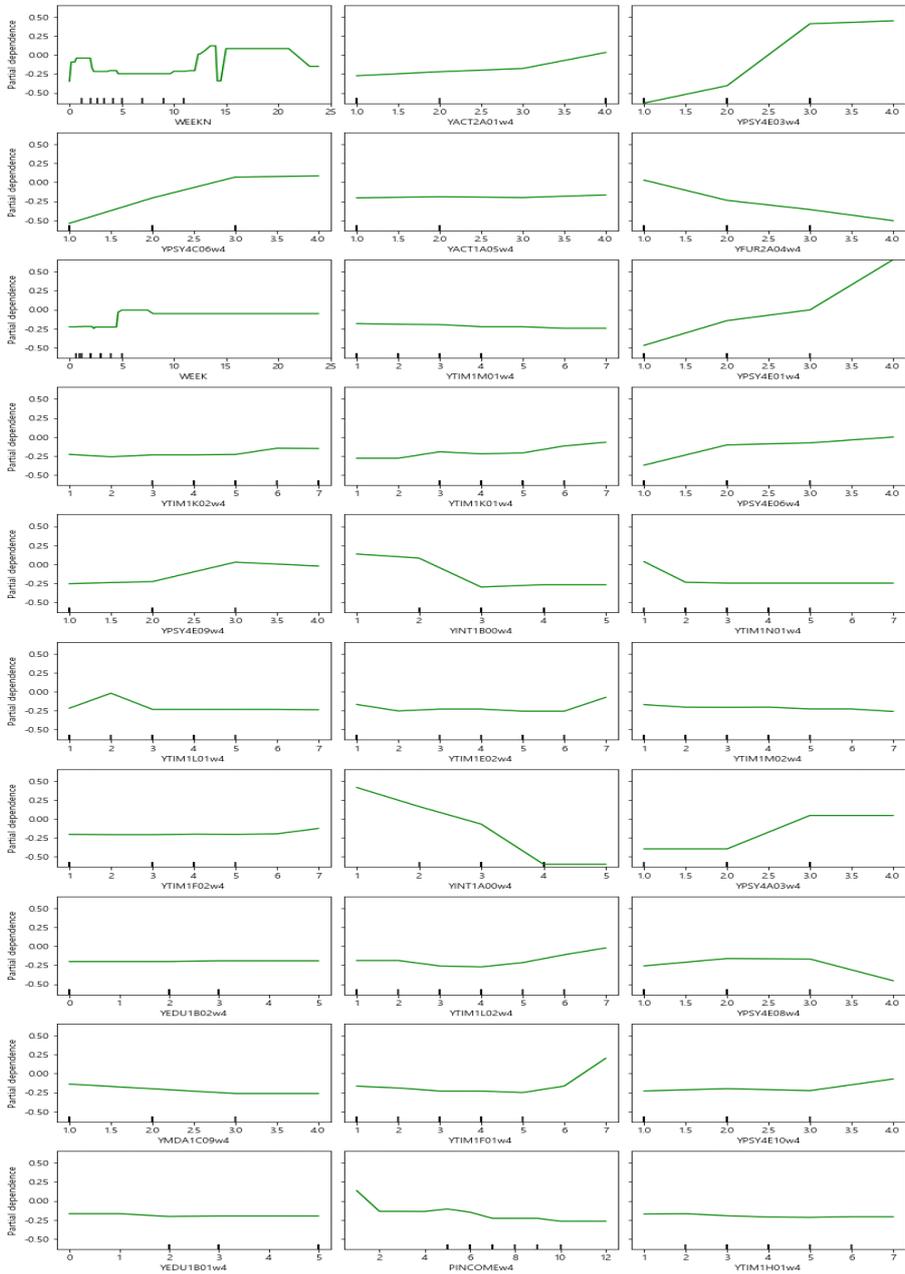
[그림 1] 주요 설명 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기준 집단: 중1의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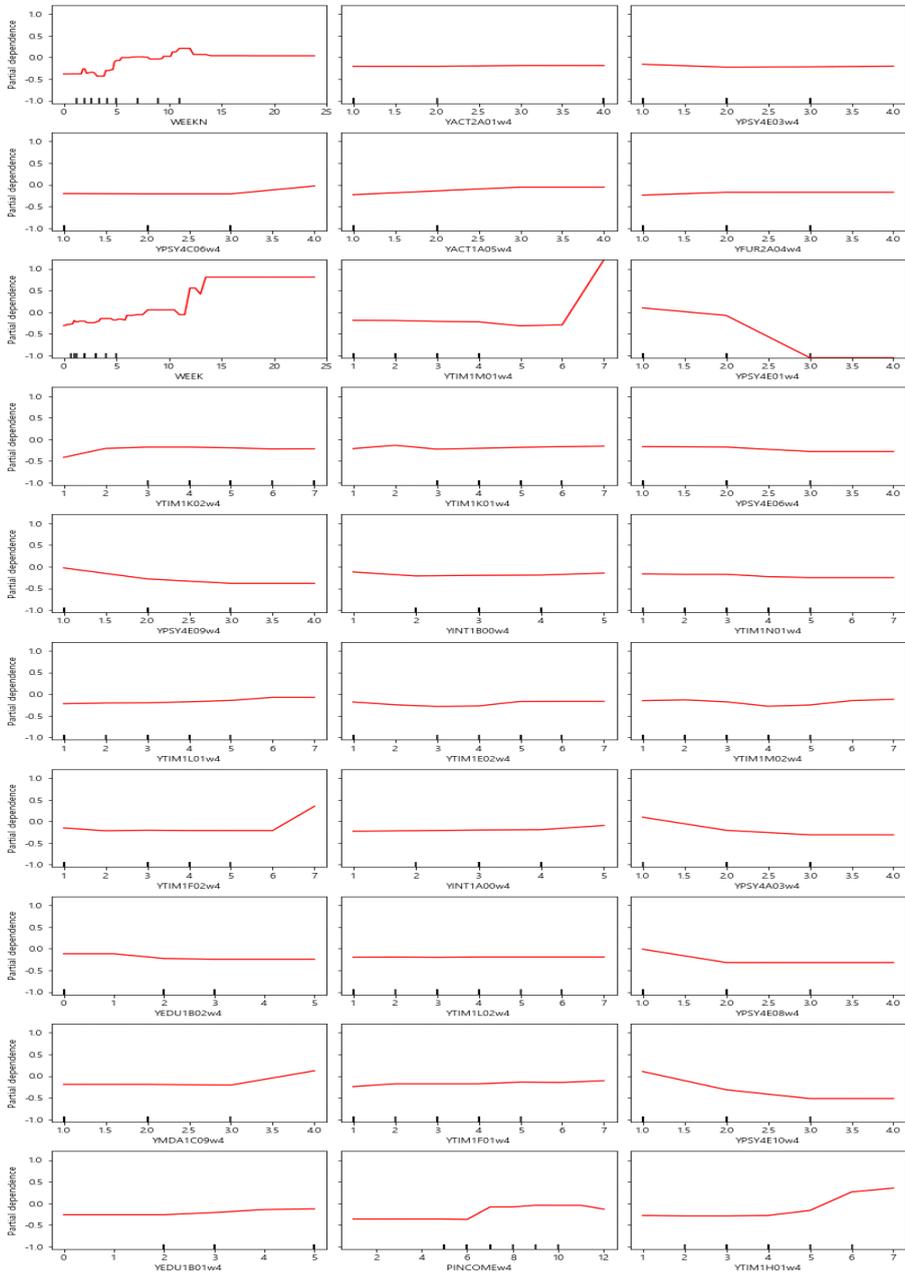
[그림 2] 주요 설명 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기준 집단: 중1의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그림 4] 주요 설명 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기준 집단: 고1의 평균 사회정서-낮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그림 5] 주요 설명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기준 집단: 고1의 낮은 사회정서·높은 정서인식 역량 집단)



[그림 6] 주요 설명변수의 부분의존성 도표(기준 집단: 고1의 높은 사회정서역량 집단)

국문초록

최근 청소년들은 가속화된 사회·환경 변화,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4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들 간의 정서인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 정서인식 역량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과 학습·심리적 요인이 정서인식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측면에서는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의 정서인식 역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 및 상호작용이 사회정서역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학교 측면에서는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이 정서인식 함양과 주요한 관련성을 지니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개인, 가정, 학교 측면의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정서인식 역량의 명확한 인지의 필요성, 적절한 교육적 개입,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가정이 지닌 역할 및 기능 회복,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A b s t r a c t

ABSTRACT

Owing to accelerated changes i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and devastating situations like the COVID-19 pandemic, adolescents are experiencing various social and emotional troubles. To this end,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on support methods that can minimize psychological and social deficits experienced by adolescents.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carried out in 2021 was us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y tendency of adolescents, their guardians, and sibling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ies. This study also classified a latent group for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influence the group.

At the individual level, there were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y of adolescents depending on their background characteristic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various psychological/emotional and academic/psychological factors and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y. Furthermore, at the family level, there were similar tendencies in the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ies of adolescents and their guardians and siblings. In addition, emotional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ocial and emotional skills. Lastly, at the school

level, the formation of positive social relations exhibited strong correlations with the nurturing of emotional awareness. Experience in diverse activities at school and local communities has an impact on distinguishing th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latent group.

Based on the key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evels are presented to cultivat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f adolescents. The need for clear recognition of adolescents'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awareness competency, appropriate educational intervention, support for adolescents' psychology and emotions, restoration of the roles and functions embodied by the family, form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s at school, and support for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22-일반02-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22-일반03-0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자체번호 22-일반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자체번호 22-일반04-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자체번호 22-일반05-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자체번호 22-일반05-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자체번호 22-일반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자체번호 22-일반0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 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욱 (자체번호 22-일반0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 (자체번호 22-일반08-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자체번호 22-일반08-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자체번호 22-일반08-0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욱·이기연·이복실·안예지 (자체번호 22-일반08-0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자체번호 22-일반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자체번호 22-일반09-01)

수 시 과 제

- 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탁과제

- 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 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유미·송현주·김균희
- 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유미
- 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7호 :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8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9호 :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0호 :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1호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3호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44호 :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64호 :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5호 :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NYPI Bluenote 통계 66호 :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7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8호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NYPI Bluenote 통계 69호 :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70호 : 디지털 성범죄
- NYPI Bluenote 통계 71호 :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NYPI Bluenote 통계 72호 :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7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65-7 94330

979-11-5654-363-3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65-7

ISBN 979-11-5654-363-3(세트)